

**메가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525호

Monday, April 6 2026 A

## 내일, 이란 지옥문 데드라인

(한국시간 7일 오전 9시)



이란 "미군 블랙호크 격추" 이란 국영방송이 5일(현지시간) 공개한 사진으로, 이란 중부 상공에서 추락한 미군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잔해로 추정된다. 이란은 미 F-15 전투기의 실종 탑승자를 수색하고 있던 헬기 2대와 C-130 2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AFP=연합뉴스)

### 중동 대공세 최후통첩 D-1

트럼프, 발진소·교량 등 폭격 위협  
폭스 인터뷰션 "6일 합의할 수도"

"미친 놈들(crazy bastards), 빌어먹을 호르무즈해협을 당장 개방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보게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화요일은 이란에서 '발진소의 날'이자 '교량의 날'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초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선 "월요일 오후 1시(한국시간 7일 오전 2시)에 군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혀 추가 조치 발표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옥문이 열리기까지 48시간 남았다"고 경고하며 군사행동 가능성을 직접 언급

했다. 해당 발언은 미 동부시간 4일 오전 10시5분에 올라왔으며, 48시간 후는 6일 오전 10시5분(한국시간 6일 오후 11시5분)에 해당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닷새간 이란 발진소 인프라 공격 유예를 선언했다가 시한 만료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발진소 파괴 유예 시한을 4월 6일 오후 8시(한국시간 7일 오전 9시)로 열흘 연기한다"며 재연장했다. 시간차가 있지만 현지시간으로 6일 중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6일 이란과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시사하며 협상 여지도 열어뒀다.

4일엔 전쟁 발발 후 처음 국지적 지상전을 펼치며 이란에 격추된 F-15E 조종사와 장교를 구해낸 미국이 여세를 몰아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군사적 움직임도 본격화했

다.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C-17 전략수송기 수십 대가 미 동부와 중동을 오가며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키고 있다. 블룸버그는 "스텔스 순항미사일 JASSM-ER 재고 대부분이 중동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사거리 약 1000km의 이 미사일은 전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이스라엘 역시 군사행동 준비를 마쳤다. 로이터통신은 "에너지 시설 타격 준비를 완료하고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이스라엘은 4일 이란 석유화학단지과 부세르 원전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란은 같은 날 바레인 국영 에너지기업 바프코의 원유탱크와 쿠웨이트 석유시설, 발전·담수화 시설 등을 공격한 데 이어 5일에도 아랍에미리트 서부 석유화학공장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한지혜 기자

## 출생시민권 폐지 시 한인 등 아시안 직격탄

###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연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데 성공할 경우, 아시안 커뮤니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아시안 이민자 1000명당 41명이 '미등록' 상태, 즉 불분명한 신분 상태로 태어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라틴계의 경우 1000명당 17명이 '미등록' 상태로 태어날 것으로 보인다.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될 경우, 2050년까지 미국에서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채 태어나는 자녀의 수는 최대 6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시안에게 특히 출생시민권 폐지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시안들이 단기 비이민 비자로 체류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 취업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중에 낳은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은 "라틴계 이민자들의 경우 불법체류자 인구가 많아 절대적으로는 가장 많은 자녀가 불체 신분으로 태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아시안의 경우 불체 인구 규모는 적지만, 출생 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에서 시민권 없이 태어나는 아시안 자녀들의 수가 매우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시안 상당수가 미국에서 수년간 일하고 세금을 납부해왔으며, 많은 사람이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대기한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자녀들에게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조치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 교황 레오, 세계적 분쟁속 '희망' 촉구

### 지구촌 모든 전쟁 중단 요청

교황 레오 14세(사진)는 5일 즉위 첫 부활절 미사에서 "죽이고 파괴하는 전쟁의 폭력"에 맞서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전 세계로 분쟁이 확산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전쟁이 두 달째 접어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레오 교황은 적대 행위의 중단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불활절 강론에서 교황은 전쟁을 일



키고, 약자를 학대하며,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들을 특히 질책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교황인 레오는 이날 흰 장미로 둘러싸인 성 베드로 광장의 야외 재단에서 신자들에게 연설했다.

교황은 신자들에게 "불의, 당파적 이기심,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 가장 취약한 이들에 대한 무관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성환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형,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플랜지매기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 형사법 전문 변호사

##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데이빗 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 프랑스·일본 배 호르무즈 통과... 한국 26척은 그대로, 왜

일본 배, 서류상 파나마·인도 국적 정부 “이런과 단독 협상 없다” 원칙 다국적 공조가 사태 해결 유리 판단

프랑스와 일본 관련 선박들이 최근 잇따라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자,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 26척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선박 통항 관련 개별 협상을 지양하고 국제 공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비용 손실을 우려하는 해운업계와는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한국 선박 26척은 호르무즈 인근에서 대기 중이다. 반면에 주변국 일부는 우회로를 찾았다. 지난 3일 프랑스 선사 소유한 몰타 선적 컨테이너선 ‘CMA CGM 크리비’호가 이란의 ‘안전 통로’를 이용해 빠져나왔고,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 계열의 파나마 선적 ‘소하르 LNG’호(3일)와 인도 선적 ‘그린산비’호(4일)가 각각 차례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국가 간 교섭력의 차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즉각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호르무즈해협 통과 선박들은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 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해 해당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다른



폭격맞은 이란 석유화학단지 지난 4일(현지시간) 이란 마흐사흐르 석유화학 단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란 국영 미디어는 이날 이란 남서부의 석유화학 구역에서 공습이 발생했다고 보도했고 이스라엘군도 마흐사흐르 석유화학 단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제규범 등에 따라 한국 포함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 관련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도 “이번에 통과한 일본 관련 선박들은 서류상 국적(선적)이 파나마·인도일 뿐 아니라, 실제

선박을 소유·운영하는 주체도 오만과의 합작회사이거나 인도 현지 자회사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막후 외교력이 작동했다기보다는 이란과 우호 관계인 오만·인도 등 해당 선박과 얽힌 제3국 정부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에 가깝다는 취지다. 실제로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도 지난

4일 ‘소하르 LNG’호에 대해 “통과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선박 역시 국가 개입 없이 해당 선사가 자체적으로 이란 요구를 수용해 빠져나온 사례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사태 장기화 우려에도 이란과 개별 항행 교섭에 나서지 않는 배경

에는 ‘나쁜 선례’에 대한 부담이 깔려 있다. 한국이 다국적 공조를 이탈해 별도 협상에 나설 경우 이란이 이를 빌미로 통행료나 지지 선언 등 조건을 내걸며 한국을 지렛대로 삼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35개국이 개별 협상을 지양하고 ‘항행의 자유’라는 공동대오를 유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달 31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납부 문제에 대해 “현재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만한 물리적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취지로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대기 중인 우리 선박 26척과 관련해 “당장 빠져나와야 할 긴급 수요는 없는 상황”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정박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해운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체 26척 중 10척을 차지하는 중소 선사들은 사태 장기화 시 출도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과적으로 이란과 우호적인 제3국 합작 지분 등 우회로를 활용한 일부 외국 선사들과 달리 순수 국내 자본 위주인 한국 선박들은 정부의 다국적 공조 기조 속에서 선택지가 좁아진 상황이다. 윤지원 기자

## 중국 “이란의 패배 용납 못한다”... 중동 넘어 EU와 휴전 중재 외교

중국, 이란 돕는 이유 5가지

중국이 이란의 패배를 막기 위한 중재 외교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일 왕이(王毅·사진) 중국 외교부장은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독일·유럽연합(EU) 외교장관과 연례 통화를 갖고 미국과 이란을 동시에 겨냥하며 조속한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앞세운 ‘중동평화 5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뒤, 중동을 넘어 유럽까지 지지 세력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6

주째로 접어들 가운데 중국은 “서두르지 않으면서, 이란의 패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굳혀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개전 초 개입을 꺼리던 중국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패배해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상황을 막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패하지 않도록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중국이 이란 지원에 나선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가 꼽힌다. 첫째,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장악 방지다. 이란에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경우, 중국의 핵심 에너지 수입 통로를 차단당할 수 있어서다. 둘째, 미국의 달러 패권(페트로 달러) 흔들기다. 중국은 이란과 석유 거래의 최소 80% 이상을 위안화로 결제하며 페트로 위안화를 시험하고 있다. 이란 전쟁은 페트로 위안의 정착을 위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지키기다. 이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글로벌 전략인 일대일로의 핵심 허브인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요충 국가다. 만

일 이란이 붕괴해 과다르항 방어가 어려워지면, 일대일로의 서부 축이 무너진다. 넷째, 중국 서부 국경의 완충지대 확보다. 중국이 소수민족 거주지인 신장·티베트에 테러 집단의 유입을 막는 데는 인접한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의 협력이 필수다.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 지난해 이란의 가입을 추진한 것도 완충지대 확보가 핵심 이유였다. 다섯째, 이란 투자금 사수다. 2021년 3월 왕 부장은 테헤란을 방문해 향후 25년간 400억 달러(약 604조원)를 투

자하고 대가로 이란산 원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25년 협정’을 체결했다. 만일 이란이 미국에 패한다면 중국의 투자는 무위로 돌아간다. 약 5주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새로운 협상 카드를 보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귀중론(郭崇倫) 대만 연합보 부편집인은 4일 “이란 분쟁의 종식을 돕는 것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5월 트럼프 방종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워싱턴 날씨 (°F)**

7일(화)	55-33	☀️	10일(금)	73-54	☁️
8일(수)	54-36	☀️	11일(토)	75-52	☁️
9일(목)	62-43	☁️	12일(일)	80-60	☁️

4월 6일(월) 64-45

**워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SALE** **특점**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장 3½

**RENT** **특점**  
가치있는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장 2.2

# GEICO is now available in our agency.

We're excited to offer our local insurance expertise along with the benefits of GEICO.

- Competitive rates and savings
- Outstanding claims experience
- Easy access to great coverage

Locations are owned and operated by independent contractors/agents of the GEICO companies.

Call to get a GEICO quote today!

**김원기 종합보험**  
(301) 962-8300  
(301) 526-7000(c)  
won@wkkinc.com

Get more with **GEICO**

# 글로벌어린이재단 VA '회원의 날' 행사 개최

### 70여 회원 참석 친목 다져 조만간 기금모금 바자회 개최

글로벌어린이재단 버지니아지부(회장 김남숙)는 4일 애난데일 소재 메이슨 정부청사에서 '회원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 행사에는 70여 명이 참석해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만끽했다. 이 자리에서 제인 김 글로벌어린이재단 총회장은 지부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김남숙 회장과 최평란 이사에게 특별 감사상을 수여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 회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



버지니아지부가 '회원의 날' 행사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은 제 개인을 떠나 회원 모두가 받은 거나 다름없다"면서 회원들에게 공을 돌리며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 글로벌어린이재단 버지니아지부의 발전과 도약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4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행사는 한해진 회원이 떡과 밥, 장재욱 원장이 손만두, 그리고 김숙자

어머니가 열무김치를 도네이션 해 힘을 보탤고, 5월 기금모금 골프대회와 관련해서는 제인 김 총회장 500달러, 김지영 대회장 300달러, 김유숙 미주동 일연대 워싱턴 회장이 200달러를 선뜻 내놓았다. 또한 김광희 글로벌어린이재단 동부지역 회장은 버지니아지부에 후원금 1000달러를 보내주었다.

이날 새 회원으로 리나 김, 이설화, 이지영, 송은혜, 김주양, 최지영 씨가 가입했다.

한편, 버지니아 지부는 조만간 불우 아동돕기 기금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미 배추김치, 총각김치, 풋배추김치 245통을 주문 받았다. 김성한 기자

# 북버지니아 지역에 은행강도 연이어 출몰

최근 북버지니아 지역 각 은행에 강도가 연이어 출몰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4시53분께 게인즈빌 13236블록 게이트웨이 센터 드라이브에 있는 '캐피탈 원'에 권총강도가 들어와 텔러로부터 액수미상의 현찰을 털어 달아났다.

프린스 윌리엄 경찰은 강도는 백인 남성으로 키 5피트 10인치이고 회색 지퍼 재킷, 파란색 청바지, 등산화, 선그라스, 검은색 장갑, 검은색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묘사했다.

이보다 이틀 앞서 그레이트 폴스 지역 워커 로드에서 '웰스파고' 은행에 강도가 들어 현금을 강탈한 후 흰색 차를 타고 도주했다.

김성한 기자

# MD 주립공원 '아리랑 산책길' 명명식 성료

### 피탑스코밸리 입구쪽 1마일 오는 9월 중 최종 완공 예정 아리랑USA공동체 핵심 사업

아리랑USA공동체(회장 장두석)의 특별 관계인 메릴랜드 파탑스코밸리 주립공원 내에는 '무궁화동산'이 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숨쉬고 있는 무궁화동산은 2023년 이후 '무궁화길'과 '무궁화 명상 쉼터'를 조성해 공원을 찾는 다양한 인종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리랑 산책길' 건설에 나서 한·주류사회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거리는 총 1마일에 달하며 오는 9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아리랑 산책길은 파탑스코밸리 주립공원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진입로이다.

4일 오전 무궁화 동산에서 열린 아리랑 산책길 명명식에는 장두석 회장과, 문인석 총영사, 마크 장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안수화 메릴랜드 한인회장, 데이비드 페라로 파탑스코밸리 주립공원 디렉터, 그리고 한주류사회 인사 등



아리랑 산책길 명명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두석 회장은 환영사에서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무궁화동산과 산책길은 애국의 등불인 동시에 한국 문화의 상징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그는 "공원 관계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인사말에 나선 페라로 디렉터는 "공원 내에 무궁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산책길은 만들게돼 영광"이라며 "무궁화 산책길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인석 총영사, 마크 장 하원의원, 안수화 메릴랜드 한인회장이 차례로 축사를 했다.

식순에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풍물패 한판의 신명나는 농악놀이와 K 팝댄스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

엘리엇 시티에 사는 한 참석자는 "막상 와서 무궁화 동산과 쉼터, 그리고 산책길을 보니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다"며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기자

# 워싱턴일원 주말 사건사고 잇따라

주말 사이 워싱턴 지역에서 교통사고와 화재, 총격 사건 등이 잇따르며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비밀경호국은 5일 새벽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격 사건은 라파예트 공원 근처에서 일어났는데, 비밀경호국은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공원 인근을 수색했지만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DC경찰과 협력하여 용의자량과 인물 추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워싱턴DC 소방국에 따르면, 4일 오후 서북부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불이나 소방관 한 명이 부상을 입었고, 3명이 거처를 잃었다. 화재는 600블록 라몬트 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한 2층짜리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시작돼 전체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같은 날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스 카운티의 노크스빌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이 거처를 잃고 이재민이 됐다.

윌리엄스 소방국에 의하면, 12200블록 콜빈 레인 근처의 집에서 일어난 불은 주택 뒤쪽에서 시작되어 집 안과 다



연립주택 화재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 (워싱턴DC소방국 제공)

락방으로 빠르게 번져나갔지만, 집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안전하게 탈출했다. 이재민들은 현재 적십자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루 전인 3일 밤에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한 남성이 길을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

페어팩스 경찰은 이날 밤 10시20분경 우르른 지역의 리치몬드 하이웨이와 포히크 로드 교차로에서 60대 남성이 길을 건너던 중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김성한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인원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엇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제사 명칭과 교수자격 사사  
- 서울중의대학 중의과대학사  
- 임상 26년 경력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http://chaoorientalmedicine.com/

# “돈이 돈을 벌게 하라” Make your money work for you

## 3주 코스 재정클래스

- Lesson 1 이자 공부와 재정 점검
- Lesson 2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 찾기
- Lesson 3 종합적인 절세 플랜

- 등록 : Karen Ahn 703-688-2645
- 등록비 : \$100
- 각 레슨 한 시간씩



등록 QR



## 대면 강의

화요일 저녁반 7pm est ~ 4/14, 21, 28  
금요일 오전반 11am est ~ 4/10, 17, 24

## Zoom 강의

수요일 점심 1pm est ~ 4/22, 29, 5/6  
목요일 저녁 7pm est ~ 4/16, 23, 30

## 클래스 장소

High Calling Financial  
10505 Judicial Dr. Suite 300  
Fairfax, VA 22030

\*개인 일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대면과 줌 수업 간 교차 수강이 가능합니다.

## Speaker



**Karen Ahn (캐런 안)**  
-High Calling Financial CEO  
-Financial Advisor & Certified Tax Advisor



**Shelly Rhee**  
-Real Estate Agent,  
Loan Broker



**Myung Chul Kim**  
-Enrolled Agent,  
Financial Professional



**High Calling Financial**

703-688-2645

10505 Judicial Dr. #300 Fairfax, VA 22030

karenahn@highcallingfinancial.com

https://www.highcallingfinancial.com

재정 전문가 캐런 안이 현재 재무 점검 → 세금 절감 → 보험과 은퇴 준비 → 상속 계획까지 인생 전 과정을 돕는 종합 재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5000만불 가로챈 의료 사기 한인 등 15명 적발

간호사·심리학자·카이로프랙터  
기소된 15명에 한인 1명 포함  
신분 변경 건강검진 서류 위조



2일 메흐메트 오즈(오른쪽 세 번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 국장과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들이 호스피스 의료 사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한인을 포함한 15명이 기소됐다. [법무부 페이스북 캡처]

연방 당국이 거주 지역에서 호스피스 및 의료 관련 사기 단속을 벌여 한인을 비롯한 15명을 기소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거주 내 호스피스 업계의 과다 청구와 편법 운영 실태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연방 및 주정부의 추가 조사가 예고된 상황에서 진행돼 향후 더 많은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내 호스피스 사기 행각 등을 적발하기 위한 대규모 의료 사기 단속 작전이 진행됐다. 작전명은 '네버 세이 다이(Never Say Die)'로, JD 댄스 부통령이 이끄는 사기 근절 전담반(TF)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 연방 기관이 공조해 의료 사기 행각을 벌인 간호사, 심리학자, 카이로프랙터 등 15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각기 다른 혐의로 기소됐지만, 편취한 연방 지원금 규모는 50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15명 중에는 한인 고영주(59)씨도 포함됐다. 고씨는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로 이스트 할리우드에 거주하며, 비자·허가증 등 이민 관련 서류 사기 및 오용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나 의사로 사칭해 영주권 신청자나 체류 신분 변경 대상자의 건강검진 서류를 돈을 받고 위조한 혐의다.

법무부는 고씨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에 맞게 서류를 조작해 왔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제첩범수사국, USCIS 등이 공동 수사 중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호스피스 및 의료 업계를 겨냥한 대규모 사기 적발이다. LA카운티는 그동안 호스피스 시설의 과다 청구와 부실 운영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만연한 지역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호스피스 사기 온산지'로 불리는 밴나이스 지역에서는 한 건물에

100개 이상의 호스피스 시설이 등록 된 사례까지 확인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고, 거주 의회 역시 연방 지원금 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연방 당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LA 지역 의료·복지 사기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빌 에세일리 연방 검찰 거주 동부지검장은 "이 같은 사기 행각이 특히 LA 카운티에서 도를 넘고 있다"며 "사기 적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

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호스피스 업체를 통해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환자로 등록해 메디케어를 부당 청구하거나, 환자 모집 대가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애너하임 지역 간호사 롤리타 베로닐라 마이너드(65)는 '토펙가 호스피스 케어'를 운영하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917만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를 제출해 약 851만 달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호스피스 기관에 등록하고, 환자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혐의도 받는다.

코비나 지역 심리학자 글래드윈 길(66)과 간호사인 아내 아멜루 길(70)은 '626 호스피스'를 운영하며 환자 알선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제공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520만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를 제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약 400만 달러를 받아 주택담보대출 상환, 고급 식당 이용, 해외여행 등 개인 소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준 기자

## 전과 자동 통보, 이민 심사 깐깐해진다

SNS·금융 기록까지 확인  
고위험 외국인 원천 차단

이제부터 범죄 기록 등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자동 통보된다.

USCIS가 이민 심사 강화를 위해 기존 제도보다 심사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당국은 최근 수개월간 내부 시스템과 서류 중인 이민 신청 서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심사 및 검증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USCIS에 따르면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자 가운데 부적격자임에도 충분한 검증 없이 승인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신청자 신원 확인 체계를 강화했다.

우선 일부 취업허가서(EAD)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EAD 소지자에 대한 보안 검사 빈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지문 제출 시 생체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소셜 미디어(SNS) 및 금융 정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커뮤니티 인터뷰를

강화해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생체정보와 신규 범죄 기록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내부 시스템도 구축했다. 최종 심사 전 전과 기록 및 국무부 데이터베이스 확인 절차도 의무화했다.

USCIS는 신원 확인 절차 강화와 함께 고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여행금지 지정국의 위험 요소를 분석해 입국 시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김경준 기자

## 운전 중 휴대폰 잡으면 벌금

LA경찰국(LAPD)이 4월 한 달간 운전 중 휴대폰전화 사용 등 부주의 운전행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LAPD는 지난 1일 "4월은 전국적으로 '부주의 운전 인식의 달'이라며 '단속 기간 동안 거주민의 핸드프리(hand-free) 휴대폰 사용법' 위반 차량을 중점적으로 적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주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할 수 없다.

신호 대기 중에도 문자 메시지 확인, 통화, 앱 사용 등 휴대폰 조작은 모두

금지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며, 동일 위반으로 36개월 이내 두 번째 적발될 경우 운전 기록에 벌점이 추가된다.

경찰은 휴대폰전화 확인뿐 아니라 차량 내 터치스크린·오디오 조작, 음식물 섭취 등도 운전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LAPD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 지역 운전자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1.4%가 문자 메시지 확인이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한 운전을 가장 큰 교통 안전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강한길 기자

## 월드컵 티켓값 급등... '축제' 취지 퇴색

결승전 최고 1만 달러 돌파  
동적 가격제 도입, 가격 급등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 70여 일을 앞둔 가운데 경기 티켓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인의 축제'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최근 월드

컵 결승전 티켓 가격을 인상했다. 결승전 티켓 가운데 가장 비싼 '카테고리 1'은 1만990달러로, 지난해 9월 초기 판매가 6370달러 대비 약 73%, 12월 조추첨 이후 책정된 8680달러보다도 약 26% 오른 수준이다.

카테고리 2는 5575달러에서 7380달러로, 카테고리 3는 4185달러에서 5785

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월드컵 티켓 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FIFA는 각국 축구협회에 '충성도 높은 팬'을 위한 60달러 티켓을 별도로 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티켓은 팀당 400~750장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외 티켓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FIFA는 동적 티켓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방식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약 70명은 FIFA에서 한을 보내 "2026년 월드컵에 동적 티켓 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축구의 접근성



과 포용성을 증진하고 발전시키겠다는 FIFA의 핵심 사명과 배치된다"며 "개최 도시들이 역사상 가장 크고 세계적인 월드컵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티켓 가격으로 인해 이번 월드컵은 대중과 가장 거리가 먼 대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윤서 기자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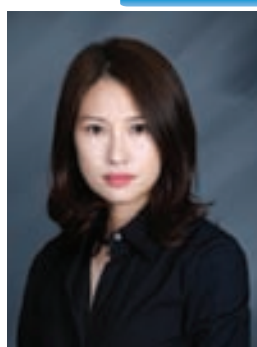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텐트 치워도 또 몰려드는 홈리스 무한반복

노숙 쓰레기 덮힌 우체국 마비  
홈리스 학생 5년 새 16% 늘어  
확보한 예산 절반도 집행 못해



맥아더 공원 인근 웨스트레이크 지역 한 우체국 주차장 주변에 형성된 홈리스 텐트촌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인근 주민과 입주들은 위생·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당국에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캘리포니아 홈리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학생 홈리스까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LA시는 막대한 홈리스 예산을 확보하고도 절반 수준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UCLA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LA카운티의 노숙 학생 수는 2023~2024학년도 기준 6만124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4만7689명보다 28%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같은 기간 거주 전체 노숙 학생 수는 16% 늘어 LA카운티 증가율이 주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연구진은 주거비 부담, 경제적 불안정, 학교 지원 예산 부족, 인종·계층 간 불평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홈리스 대상 음식 제공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아버지밥상교회 무디고 목

사는 주거비 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고 목사는 “학생 노숙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주거비”라며 “가주는 전국에서도 렌트비와 주거비가 가장 비싼 지역인 만큼 학생과 저소득층을 위한 시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A의 거리 상황도 심각하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대에서는 주택가와 공공시설 주변에 홈리스 텐트가 다

시 들어서고 쓰레기가 쌓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이은주(29)씨는 “집 앞에 텐트가 생겨 시정부에 신고하면 잠시 치워지지만 길어야 일주일 안에 다시 들어온다”며 “치운 자리도 금방 다시 어질러지고 밤에는 혼자 다니기 불안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왜 거리로 나오는지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폭스뉴스는 LA 다운타운의 한 우체국 주변이 홈리스 텐트와 쓰레기 더미로 뒤덮여 있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음식물 쓰레기와 폐가전, 벗겨진 구리선, 쥐까지 포착됐고, 우체국은 정상 운영 중이지만 사실상 공공시설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 매체는 특히 우체국 맞은편 LA 소방국(LAFD)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긴급 출동건 중 약 80%가 홈리스 관련 문제라고 전했다. 노숙 문제가 공

공안전과 응급 대응 체계까지 압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처럼 LA 곳곳에서 노숙 위기가 심화하고 있음에도 예산 집행은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점이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2026 회계연도 홈리스 대응 예산은 약 11억 달러였지만 실제 집행액은 5억1600만 달러에 그쳤다. 계약상 즉시 집행이 어려운 1억1900만 달러를 포함하더라도 약 4억7300만 달러는 집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같은 예산 미집행은 계속 반복됐다. 2024~2025 회계연도에도 13억 달러 가운데 5억 달러 이상이 집행되지 않았고, 실제 사용액은 5억9900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케네스 매하야 LA시 감사관은 “예산은 크게 편성돼 있지만 실제 집행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홈리스 주거 지원과 각종 서비스는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니디아 라만(4지구) 시의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집행되지 않는 예산은 시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강한길 기자

## 흙친 촉매변환기 1800개 와르르

노워크시 대규모 급습 작전 50만  
불 상당 절도 4명 체포



시가 50만 달러 상당의 촉매변환기 1800개가 노워크의 한 건물에서 발견됐다. [KTLA캡처]

LA카운티에서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 도난 사건 용의자들이 체포됐다.

볼드윈파크 경찰국(BPPD)은 노워크 지역에서 약 50만 달러 상당의 도난 촉매변환기들을 압수하고 관련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LA 전역에서 촉매변환기 절도 사건이 급증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노워크 지역의 한 보관 장소를 특정하고, 지난달 31일 급습 작전을 벌여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1800여 개의 촉

매변환기와 차량 4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용의자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으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BPPD를 비롯해 샌버나디노 셰리프국(SBSD), LA카운티 셰리프국(LASD), 치노 경찰국(CPD)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한편 촉매변환기는 차량 배기가스 내 유해 물질을 덜 해로운 가스로 변환하는 장치다. 백금·팔라듐·로듐 등 값비싼 금속이 포함돼 있고 다른 부품에 비해 비교적 쉽게 탈거할 수 있어 도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는 LA경찰국(LAPD) 차량 보관소에 침입해 촉매변환기를 훔치려던 절도범이 체포되기도 했다.

송윤서 기자

## MTS 친환경교통 투자확대

온실 가스 감축추진



미션밸리 센터 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트롤리 열차의 모습. [중앙포토]

캘리포니아주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교통망 구축을 위해 샌디에이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S)에 6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키로 결정된 재원은 주 정부의 교통 및 도시간 철도 자본 프로그램(TIRCP)을 통해 마련됐으며 전기버스 도입과 경전철 현대화 사업에 투입된다. MTS에 따르면 지원금 중 약 4830만 달러는 오렌지라인 개선 프로젝트 2단계에 사용된다. 매사추세츠역부터 엘카혼 트랜짓센터 구간을 중심으로 건널목 안전 강화, 노후 신호 시스템 교체, 선로 및 통신설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운행 안전성

과 정시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약 1210만 달러는 커니메사 차량기지의 전기화 1단계 사업에 배정된다. 30대 규모의 배터리 전기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상부 충전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공사는 오는 6월 시작된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Always With You!  
**703-507-2492**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CEO  
Principal Broker

“30년 이상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량금(미락소)몰  
웨일리노라방  
40  
300m  
뉴타운

미락소 몰 대량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 40여개국 호르무즈 개방 논의

### ‘직접 해결하라’ 트럼프 달래기 영 “모든 외교·경제 수단 동원” 선박 2000척, 선원 2만명 감혀

한국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이 이란이 전쟁 중에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외교 장관 회의가 2일 화상으로 열렸다.

회의를 주재한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오후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오늘 모든 범위의 외교적, 경제적 수단과 압력의 집단을 포함한 외교적, 국제적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쿠퍼 장관은 ▶산업·보험·에너지 시장과의 협력 확보 ▶간혀 있는 선박과 선원 안전 보장 조치 ▶안전하고 지속적인 해협 개방을 위해 전 세계에 걸쳐 필요한 효과적인 협력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쿠퍼 장관은 특히 “해협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이 25건 이상 일어났으며 선박 약 2000척, 선원 약 2만명의 발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분쟁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향한 이란의 무모함이 세계 경제 안보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기 위해 국제 해상운송로를 강탈하는 것을 묵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 한국에서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참여한다고 앞서 외교부가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캐나다 등 나토 주요 회원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국가,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했으나 미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한국 등 동맹국들을 거론하면서 도움이 안 된다고 불만을 표출했고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를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협의 안전 향해를 확보해야 하는 건 이를 통해 석유·가스를 들여오는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라고도 거듭 주장했다.

주요국들은 파병에 선을 그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에 기여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트럼프 대통령 ‘달래기’에 노력하고 있다.

쿠퍼 장관은 이번 회의에 이어 내주 군사 전략가 회의도 열어 안전한 통항 확보를 위한 방안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간 가디언은 군 전략 회의에서는 기뢰 제거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선박 구조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국들은 전쟁이 최고조를 지난 이후에 해협을 안전하게 통항할 방안을 논의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지난 1일에도 “(참여국들이) 전투가 멈춘 후에 해협을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 방안을 살펴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연합 구성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욤 베르네 프랑수아군 대변인도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절차는 여러 단계에 걸쳐 있으며 적대행위가 진정되거나 종료된 다음에야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 대이란 군사작전 한창인데 육참총장에 “당장 군복 벗어”



미군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방장관의 요구에 따라 육군 참모총장이 물러나게 됐다고 CBS뉴스와 로이터 등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랜디 조지(사진) 육군 참모총장에게 사임 및 즉각적인 전역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조지 총장이 참모총장 자리에서 사임할 것이며, 사임은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조지 총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복무했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3년에 상원 인준을 거쳐 현직에 임명됐다. 보통 육군 참모총장의 임기는 4년이어서 조지 총장은 내년까지는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돼 왔다.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 와중에 육군 참모총장의 경질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CBS뉴스는 육군참모총장 교체 시도가 최근 친트럼프 가수 키드 록의 집 앞에서 군용 아파치 헬기가 ‘제자리 비행’을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이후에 이뤄졌다면 서두 사안의 관련성 유무에 주목했다.

육군이 키드 록 자택에서 자공비행을 한 헬기 2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종사들의 직무를 정지하자, 헤그세스 장관이 몇 시간 만에 직무정지를 해제하고 조사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을 불렀다.

이은영 기자

## 동성애→이성애 전환 상담 막는 건 위험

### 연방대법, 전환치료 금지하는 위험

개인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나 양성애에서 이성애로 전환하거나, 성적체성을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시키기 위한 상담 치료를 의미하는 이른바 ‘전환치료(transition therapy)’를 미성년자에게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성전환을 고민하는 청소년

년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이나 보수적 가치관에 기반한 상담 행위가 가능해지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전환치료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이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찬성 8명·반대 1명)했다.

이번 판결로 가주를 포함해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상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24개 주의 유사 법률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콜로라도주 법을 ‘관점에 따른 검열’로 규정했다.

상담실에서 이뤄지는 대화라 하더라도 정부가 성별 전환을 권유하는 특정 방향의 발언만 허용하고 다른 관점을 금지하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통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전환치료 자체의 타당성을 인정했다기보다 이를 금지하는

방식이 면허를 가진 상담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소송은 콜로라도스프링스의 기독교 상담사 케일리 차일스가 제기했다. 그는 청소년 내담자들이 신앙에 기반해 성적체성과 감정을 상담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 법이 이러한 자발적 대화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전쟁에도 M&A ‘빅딜’ 사상 최다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 격화로 올해 1분기 이뤄진 전 세계 인수·합병(M&A) 거래 가운데 100억 달러 이상의 ‘빅딜’이 역대 최대 건수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1일 시장데이터 업체 LSEG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글로벌 M&A 거래 규모는 총 1조2000억 달러로 집계됐다.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지만, 총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특히 100억 달러 이상의 빅딜이 1분기 중 22건 체결되며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대형 M&A 거래 6건 중 4건은 AI 관련 분야에서 이뤄졌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분쟁이 격화되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지

만 M&A 딜을 쥐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UBS의 필립 베크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M&A 책임자는 “M&A 딜은 단기 시장변동성보다 강력한 전략적 논거에 의해 추진된다”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의 존 폴란스 M&A 글로벌 공동 책임자는 “(전쟁으로 인한) 변동성이 완화된다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내 대형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M&A 거래 증가에 따른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 수익 증가로 호실적을 거둔 바 있다.

AI 산업이나 빅테크(거대 기술기업)가 주도한 거래 외에도 관세 대응이나 공급망 안정을 위한 M&A도 이어지고 있다.



아르테미스서 본 지구 달로 향하는 아르테미스 II 임무 중 리드 와이즈먼 우주비행사가 2일(현지시간) 우주선 창문을 통해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다. NASA가 공개한 이 사진에는 열은 초록빛 오로라가 포착됐다. 아르테미스 II는 4일 지구보다도 달에 더 가까운 지점에 도착했다. [AP=연합뉴스]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찰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로터/찰틀리(Chantilly)와 찰틀리 로터에서 각각 5분거리

COWAY

# 4월에 계약하시면 Up to 10월까지 렌탈료 무료!

기간 : 2026년 3월 28일 ~ 4월 27일

4월 계약 고객 한정 렌탈료 무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프로모션 적용은 제품별 상이



## 해당 정수기, 청정기 6년 신규 렌탈 시, 6개월 렌탈료 FREE

- 해당 제품 : P-6320L, CP-6330L, CHP-6330L, CHP-5710L, CHP-5722L, CHPI-7520L, CHPI-620L-PLUS, P-2201N, P-2211N, AP-1523D, AP-2021A, AP-2023K, AP-3018B
- 조건 : 해당 제품 6년 신규 렌탈 시, 6개월 렌탈료 Free (26년 5월~10월)  
\* P-2201N, P-2211N : 자가관리 렌탈 시

더 많은 프로모션은 가까운 매장 혹은 판매인에게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코웨이 법인 매장을 방문하거나 판매인에게 문의 바랍니다.  
\* 본 프로모션은 당사의 사정에 의해 별도의 고지 없이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 본 디자인은 당사에 귀속된 지적재산권이며, 코웨이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을 금지합니다.



챗봇 상담 문의



### | 지역별 대표전화 |

• Los Angeles, CA - HQ (213) 386-3033

• New York & New Jersey (201) 482-4011  
• Washington, DC (703) 992-0835

• Atlanta, GA (678) 691-2195  
• Seattle, WA (253) 220-8893

• Chicago, IL (847) 813-6293  
• Dallas, TX (972) 466-0999

# 정청래, 대통령 마케팅 주의령 ... 친명 “최고 무기에 졌다”

(취임 전 사진 등 선거 활용)

지도부 “당무 개입 논란 차단 취지” 친명 “정청래도 홍보에 문제인 활용 지방선거는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

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내부 충돌이 발생했다. 이번엔 전날 지도부가 전국 시도당에 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 영상을 지방선거 홍보에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 때문이다.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앞세워온 한준호 의원은 5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번 선거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중간 평가인데 대통령과 관계없이 선거를 치르라는 지침”이라며 “21대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내세웠던 것과 지금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당 대표가 청와대 메시지에 맞춰 여당의 할 일을 찾아야지, 지역이냐 다니실 때가 아니다”며 “무슨 당무를 그렇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을 선거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며 “이번 지침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는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는데, 왜 우리 스스로 최고의 무기에 졌다고 채우느냐.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민주당 중앙당은 5일 추가 공문에서 “이미 설치된 현수막과 명함 사용은 가능하며, 취임 전 응원 영상을 현재 시점처럼 사용해 발생할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정청래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을 선거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강득구 최고위원)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 대표 리더십이 다시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법을 어겨

가며 대통령을 파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번 지침은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이번 공문은 최근 일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가 수년 전 이 대통령의 영상과 축전을 경선 홍보에 활용한 게 발단이 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4년 전 영상과 2년 전 축전을 활용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본인 정치를 위해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도부의 ‘대통령 보호’ 명분에도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문이 내려온 시점과 방식은 물론 당무 개입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 자체가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우는 격”(친명계 채선 의원)이라는 말도 나온다. 의원을 위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아닌 정 대표 얼굴로 홍보를 하라는 것이냐”며 “특정 후보 경고로 끝낼 문제를 지도부가 키웠다”(민주당 관계자)고 지적했다.

이번 공문 사태가 충돌 양상으로 변진 이면에는 6월 지방선거의 ‘승리 지분’을 둘러싼 계파 간 미묘한 신경전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회준 정치컨설턴트는 “친명계 입장에선 이번 공문이 지방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느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8월 전대까지 이어질 친명과 친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친여 온라인 커뮤니티도 다시 돌로 갈라졌다.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이합갤)’ 등 친명 커뮤니티에서도 “경기지사 본경선(5~7일)을 앞두고 정 대표가 경선에 개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친청(친정청래) 성향이 강한 판지일보 게시판에는 “명심 팔이를 하지 말고 공약으로 승부하라는 것”이라는 투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박태인·이찬규 기자



시민들과 꽃밭 셀카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5일 서울 여의도 윤중로를 찾아 꽃밭 아래에서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 “분쟁이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

## 이 대통령 “분쟁·증오 아닌 평화·사랑이 예수님 뜻”

순복음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 개신교와 갈등 논란 속 통합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축사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전쟁과 관련해 “회복 국면에 있던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우리 이웃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분쟁이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이라며 “어려운 분들의 수고와 각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 교회와의 친근함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소개한 소감석 목사를 향해 “제 오랜 친구”라고 했고,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대회장인 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 지도자의 이름도 하나하나 열거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예배 중엔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했다. 이 대통령은 신앙 고백 시간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사도신경을 읊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연합예배 참석은 중동발 위기 극복에 종교계 동참을 요청하는 동시에, 그간 깔려있던 일부 개신교계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신교계에선 지난해 7월 순직해병특검이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창환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압수수색하자 “종교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정부와 개신교가 거리감이 있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정치적 통합뿐 아니라 사상과 이념, 종교의 통합도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오현석 기자

## 정동영 “북한, 적대성 완화” ... 이틀 뒤 김정은 “한국, 불변의 적”

지난 2월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기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측의 적대성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북한 동향과 상반되는 보고를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2월 24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정 장관은 국무회의 생중계 직후 비공개 회의에서 “통일부에서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짧게 보고드리겠다”며 2월 19일부터 진행 중이던 북한 노동당 당대회 상

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예고 없이 보고했다. 정 장관은 “이번 당대회 기간 중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년을 ‘승리적 성과’ 이렇게 포장하면서 대내 문제에 집중했다”며 “당대회를 앞두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적대적 두 국가의 고착화 등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정세 관리 노력을 통해 일정 정도 북측의 적대성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권 시기에

북은 당 전원회의를 통해 ‘강대강 정면 승부’ ‘적대적 두 국가’ 등 대남 강경 발언을 공개적으로 쏟아낸 것과 비교하면, 대남·대미 메시지를 자제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앞으로 북미 대화 등 전략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확고한 자기 중심성을 갖고 대북 정세를 관리하고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의 보고에 대

해 이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정 장관의 보고가 실제 북한 상황과 180도 달랐다는 점이다. 국무회의 이틀 뒤인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총화 보고’에서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르고하며 결론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 “철두철미 제1의 적

대국, 불변의 주적” 같은 거친 표현도 썼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적이고 졸작”이라며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존할 일이 전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정 장관의 잘못된 보고 이후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에서 외교 라인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엔(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일이다. 당초 정부에선 외교부의 ‘참여론’과 통일부의 ‘불참론’이 맞섰다.

오현석 기자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건물·사업체·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 / 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UNI Financial  
worldwide Marketing



UNI는 19개의 지사를 통해 지난 16년간 재정 플랜을 설계해 드리고 있는 One Stop Financial 전문 에이전시입니다.



# “당신의 재정은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UNI 전문가들이 40여개 회사를 비교하여 분석한  
맞춤형 재정 설계를 통해

고객님과 가족 모두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b>Lori Moon</b> 문 로리	<b>Linda Lee</b> 이 린다	<b>Unsin An</b> 안은신	<b>Eunice Lee</b> 이은경	<b>Kyung Ja Oh</b> 오경자	<b>Tina Park</b> 박민지	<b>Miwon Chang</b> 장미원	<b>Shin Hyung An</b> 안신형
District Marketing Director 703-895-7648	Marketing Director 443-515-8522	Marketing Director 804-464-3662	Senior Agent 703-855-0929	Senior Agent 443-690-4290	Field Agent 410-353-6402	Field Agent 703-486-6082	Field Agent 804-690-0323



생명보험 | 개인 은퇴연금 | 비즈니스 절세 상품 및 은퇴연금 | 재산 상속 플랜 | 학자금 준비 | 건강보험 | 재정교육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https://uniwfm.com>

<p><b>703.865.8788</b> 3701 Pender Dr., Suite 160 Fairfax, VA 22030</p>	<p><b>804.464.3662</b>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p>	<p><b>410.995.8074</b>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p>
---	---	---

# 음주운전 보완수사 시켰는데... 캐비닛에 5년 방치한 경찰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조만래)은 지난 1~3월 경찰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2건과 사기 사건 2건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았다. 모두 2021년 서산지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사건으로, 경찰 보완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5년이 걸렸다. 불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선에서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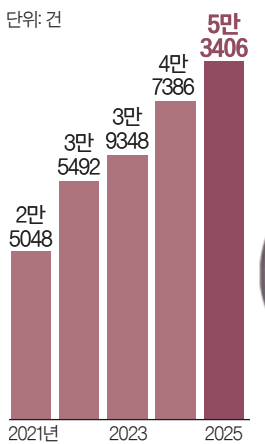
2건의 음주운전 사건은 그사이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 한 사건은 2020년 10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운전 중 적발된 내용이었다. 검찰은 2021년 1월 경찰이 송치하면서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이 실제 음주운전 적발 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또 다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2021년 2월 서산지청은 참고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2건의 사기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긴 하지만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범인을 잡기 어렵게 됐다. 각각 72만원과 40만원의 피해를 보았다며 고소장을 낸 사건이다. 온라인게임 계정을 양도받은 이후 약속한 돈을 주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경찰 불송치 이유 들여다보니**  
공소시효 지나 음주운전 처벌 못해 사건 24% '3개월내 보완수사' 미이행

**불송치에 피해자 소송 비용도 급증**  
"보완수사 제한면 경찰 통제 어려워"

경찰 불송치에 대한 연도별 이의신청 수



자료: 법무부, 대검찰청

판매한다며 돈을 받아놓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의 사기다.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2021년 당시 전산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공용 캐비닛에 기록을 보관했는데 담당자 실수로 이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고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캐비

닛을 정리하던 중 누락된 사건을 발견해 보고하고 불송치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사건들을 찾았다"고 했다.

검사와 경찰의 상호협력력을 규정한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3개월을 넘겼을 때 불이익이나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수도권 한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늦어지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경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5만 2083건 중 이행 기간이 3개월을 넘긴 사건은 1만 2256건으로, 전체의 23.5%에 달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이를 다시 송치하거나 불송치하기까지 3~6개월이 걸린 사건이 16.2%(8429건)이고, 6개월을 넘기거나 이행을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7.3%(382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부터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소송 절차를 밟으며 떠나는 비용도 커지고 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경우가 늘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려고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예전 같으면 500만원대에 끝났을 형사 비용이 민사소송과 의외의 증거 비용을 더해 1000만원을 쉽게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수사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보완수사마저 제한될 경우 1차 수사기관을 통제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정진호·석경민 기자



## “기름값 무서워 운전 못해” 서울 대중교통 이용 99만명 증가

(중복이용 포함)

중동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족’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하철·시내버스 증편을 검토하거나 교통비 환급 등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일 오전 부산지하철 서면역. 이곳에서 만난 직장인 문민호(34)씨는 “본래 자가용을 몰고 출퇴근했지만, 지난달 중순부터는 시간이 30분 정도 더 걸려도 지하철을 이용한다”며 “차를 몰면 하루 왕복 기름값이 1만 2000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유가 상승 전에는 9000원 수준이었다. 문씨는 부산 서구 자택에서 급정구 직장까지 23km를 지하철로 오가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증가세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5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이용객이 많은 부산 1~4호선 6개 환승역(서면·사상·수영·대저·동래·연산) 이용자는 99만 4182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47만 4323명(5.0%) 늘었다. 하루 평균 1만 5300명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광역 환승역인 사상역(7.0%)과 대저역(7.1%)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10일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본격화됐다. 유가 상승과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영향 등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2월 24일 리터당 1691원에서 5일 현재 1948.4원이다. 제주도는 평균 2006원이다(오피넷).

버스 이용객도 늘었다. 부산버스는 송사업조합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747만 1000건이던 버스 이용 건수는 넷째 주 774만 3000건으로 3.6%가량 늘었다. 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운수업체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마을버스는 경유차 비중이 높아 유가 상승 영향이 크다. 서울도 비슷한 흐름이다. 유가 상승 전인 2월 24~26일 서울 지역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자는 2040만 5849명(중복이용 포함, 이하 같음)이었으나, 유가 변동 이후인 지난달 10~12일에는 2140만 482명으로 99만 4633명(4.9%) 늘었다. 서울시는 6월까지 3개월간 기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월 3만원을 환급(페이백)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기동행카드에는 지하철·버스·한강버스 등을 월정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으로, 30일권 기준 일반권 6만 2000원, 청년권 5만 5000원이다. 한강버스와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포함할 경우 최대 8000원이 추가된다.

기동행카드 이용자는 월평균 약 9만 5000원 수준의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자는 약 80만명으로,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10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페이백은 이달부터 6월까지 30일권을 충전해 전액 사용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4월 이용분은 6월 환

급된다. 미사용·환불 이용자나 단기간 이용자 등은 제외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비 부담을 낮춰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구시는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배차를 집중적으로 늘려 대기시간을 줄이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버스(DRT)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요일 마일리지제’ 등도 운영 중이다. 대구시민이 주 1회 승용차 대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김민욱 기자

## 인천 옹진 비만을 전국 1위

(11.21%)

5일 김미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20세 이상 건보 가입자 비만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비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옹진군(11.21%),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과천시(4.47%)

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사람을 비만으로 집계했다. 국내 비만 기준은 BMI 25 이상이며, 30 이상은 중등도 비만으로 분류된다. 전국 비만율 하위 10위권에는 서

울 서초구(4.82%)·강남구(4.89%)·송파구(5.70%)·용산구(5.82%), 성남시 분당구(5.06%), 용인시 수지구(5.37%) 등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수도권 지역들이 몰렸다. 반면 상위 10위권에는 강원 양구군(10.33%)·화천군(10.21%)·철

원군(10.13%)·인제군(10.08%) 등 강원도 군 지역이 많았다. 수도권에선 경기도 동두천시(10.04%)가 포함됐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비만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금천구(8.55%)로 서초구의 1.8배에 달했다. 김남영 기자

## 가치를 올려 판매하는 부동산 비키리

### 집을 고쳐,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드립니다.

- ✓ 수리비 선지출 없음 (클로징 정산)
- ✓ Before / After 전략으로 집값 상승
- ✓ 빠르고 안전한 판매

집값 제대로 받고 싶으시면  
지금 전화 주세요!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앰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메릴랜드, 디씨 임대 주택 면허,  
주택검사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메릴랜드 주택 납성분 검사 인스펙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 “부처는 깍데기, 돈줄 쥔 썩사장 기획처 나와”

공공연대 노조, 오늘 원청교섭 회견  
“진짜 사장은 결정권 가진 기획처”

“진짜 사장 기획예산처는 국가기관 공무원과 직접 교섭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6일 중앙부처 공무원 3000여 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기획처 앞에서 원청 교섭 요구 기자회견에 나선다. 각 공무직은 소속 부처가 있지만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소속 부처는 깍데기일 뿐”이라며 “실질적인 임금과 근로조건은 각 부처가 아니라 기획처의 예산편성 지침과 논의에 따라 철저히 통제되고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란봉투법' 사건	
3월 10~30일	총 267건
주요 사건 일정	
7일	인덕대학교·성공회대학교 원청 용역업체 청소 교섭요구 사실 공고 한국공항공사 교섭요구 사실 공고
8일	포스코하청지회 교섭단위 분리신청 추가심문
9일	국민은행·하나은행·KB국민카드 하청 교섭단위 분리 한국전력공사 교섭단위 분리 쿠광로지스틱스서비스(CLS) 교섭단위 분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교섭요구 사실 공고 포스코에너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자료: 조자연 의원실, 중앙노동위원회, 각 지방노동위원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처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은 원·하청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처 등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첫 사용자성 판단이 나온 가운데 갈등은 이제 시작이란 우려가 현장에서 나온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상 실질적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다룬 첫 사건에서 나온 결과다.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이들 기관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 등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비교적 통상적인 계약 문서로 여겨지던 과업내용서까지 노동위원회가 들여다본 끝에 원청의 구조적 통제력을 인정했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업내용서는 제목일 뿐이며, 실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안마다 노동위원회 등이 일일이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실제 시행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달 10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동 투쟁 선포대회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67건에 달한다.

이번 사용자성 판단을 시작으로 임금 등 교섭 의제, 교섭단위 분리,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범위에 이르기까지 교섭 전 과정에서 갈등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첫 사용자성 판단을 받은 공공연대노조의 교섭 요구안에도 노동 안전뿐 아니라 정기상여금 인상, 일용직의 상시 근로 편성 등 임금·수당과 근로시간 관련 의제도 포함돼 있다. 한 대기업 인사팀 관계자는 “설령 임금을 주던 교섭 의제로 내세우

지 않더라도 부수적으로 임금 인상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섭단위 분리 역시 뜨거운 감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과 관련해 노사간 이견이 첨예하다는 이유로 당초 3일로 예정했던 판단을 오는 8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사실상 노동부가 상급단체만 달라도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교섭단

위 분리 신청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받아들여지게 되면 기업은 연중내내 개별 교섭에 끌려다녀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노동행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지, 징의행위로 이어질 경우 대체근로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등도 논쟁거리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섭단위가 쪼개져 2~3개가 되고, 쪼개진 교섭단위 안에서 교섭 의제도 개별로 판단하고, 부당노동행위 여부까지 다뤄야 한다”며 “분쟁이 아메바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연주 기자

## 박왕열이 교도소로 불렀던 애인, 공범으로 지목됐다

(마약 수익금 은닉)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뒤 현지 교도소에서 국내로 마약을 유통했던 박왕열(47)이 자신의 악명을 듣고 모여든 이들을 마약 유통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그의 필리핀 현지인 여자친구도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등을 통해 은닉해 관리하는 공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5일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필리핀 마닐라 동포 간담회에서 “교도소 안에서 애인도 불렀어”고 언급했던 현지인 여자친구의 경우에는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닌 범죄 조력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한국에 체류 중인 박왕열의 가족 역시 마찬가지로 범죄 수익금 은닉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박왕열은 각종 언론매체 노출로 얻은 악명을 활용해 자신을 면회 온 한국 국민을 짝꿍에 ‘자발적인 마약 유통책’으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

제로 박왕열의 지시로 2024년 6월 국내에 마약을 반입한 한국인 A씨는 필리핀 민도로섬을 방문해 그와 접촉한 후 범죄를 저질렀다. 2024년 7월 국내로 필로폰 3.1kg을 밀반입한 한국인 B씨의 경우에도 박왕열이 수감돼 있었던 민도로섬 ‘사블라얀 교도소’를 방문한 후 범죄에 가담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애초에 박왕열의 현지인 여자친구의 존재를 파악하게 된 건 정보자산을 동일한 결과라고 한다. 박왕열이 호화수감 생활을 누리왔던 ‘뉴빌리비드 교도소’는 물론 통신 환경이 취약한 ‘사블라얀 교도소’에서도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정보자산을 통해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2020년부터 ‘박왕열 전담추적반’을 만들어 관련 혐의를 추적해 왔다고 한다.

박왕열의 자아도취적 성향도 드러났는데, 그는 호화수감 생활 중에 각종 범죄 행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는 유력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달라진 인상 필리핀에서 국내로 압송된 박왕열이 지난 3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오른쪽은 과거 수산물 수입유통회사 운영 시절 사진.

(OTT)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자신을 인터뷰하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인터뷰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는 그가 사법제도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다만 “내가 입 열면 검사 여럿이 다 친다”며 허세를 부리던 그가 실제로는

국내 송환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무기 소지 등 필리핀 국내법 위반으로 현지에서 재판 받아야만 하는 사건을 고의로 일으켜 현지에 계속 남으려 한 정황이 국정원의 첩보망에 걸렸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박왕열의 국내 송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외교부·경찰청·검찰청·국정원 등을 중심으로 출범한 ‘조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TF는 박왕열의 범죄 혐의와 범죄수익금, 호화수감 생활 등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필리핀 당국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올 초부터 준비된 작업으로, 관련 당국자들은 설 연휴도 반납하고 박왕열 송환 준비에 매진했다. 한-필리핀 정상회담이 박왕열을 데려올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는 게 TF의 인식이었다.

정영교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 안 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증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전약은 이곳에서

# 2025 A Return

##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8,000sf의 완벽한 휴식처,  
각종행사, 가족,  
교회 단체 모임  
센터빌에서 40분  
전화예약 703-485-5483  
(138 Wooded Lane,  
Front Royal, VA)

**창문  
WINDOW  
SPECIAL**

# JGL 건설회사

JGL 건설회사는 VA/MD/DC 컨트렉터 클래스 A 라이선스 및  
시공 보험에 가입된 전문 건설회사입니다.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실내공사  
INTERIOR**

**실외공사  
EXTERIOR**

★ 마루 ★  
LVP, Hardwood  
스페셜 프로모션  
1,000sq 이상  
**\$500 할인**

★ 창문 ★  
스페셜 프로모션  
창문 20개 이상  
**\$50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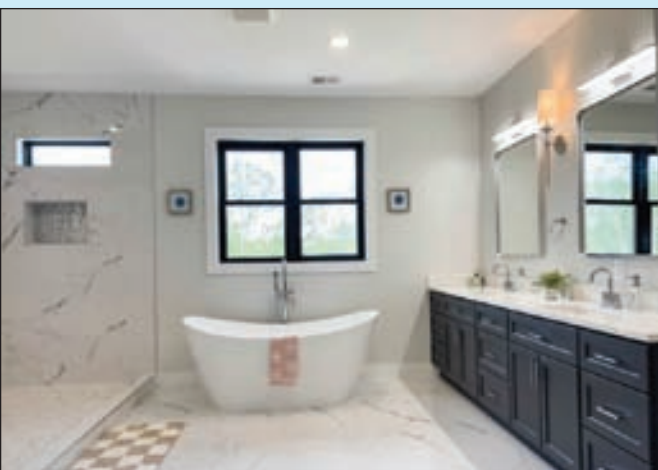
**3개월  
할부  
무이자**



**마루시공**  
Hardwood, Carpets



**주방 리모델링**  
Cabinet, Sink, Faucets



**욕실 리모델링**  
Bathroom, Tile



**덱 / 사이딩**  
Deck / Siding



**창문**  
Windows



**지붕**  
싱글, 플랫폼

## 강풍 / 우박 피해 지붕 보험 상담 환영

믿을 수 있는 자재 시공과 건설능력으로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는 보증기간!

**Exterior 문의 : 703.628.5216 / 703.474.3112**  
**Interior 문의 : 703.559.4213**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 챗GPT가 만든 판 거머진 'AI 반란군' ...

The JoongAng Plus

팩플

앤스로픽 연구

오픈AI의 챗GPT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지 3년 여. 이제 인공지능(AI) 시장의 시선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는가”에서 “누가 실제로 일을 완료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오픈AI ‘반란군’으로 불리던 앤스로픽(Anthropic)과 그들의 AI모델 클로드(Claude)가 있다.

처음엔 그저 오픈AI 출신들이 만든, 안전을 조금 더 강조하는 또 다른 챗봇 회사 정도로만 여겨졌다. 잘해야 대체재, 넓게 잡아도 후발주자였다. 그런데 그 조연 같던 회사가 어느새 판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이젠 오픈AI가 연 시장의 다음 국면을 이끌어갈 차기 대세로 자리매김하는 중. 앤스로픽은 어떻게 생성 AI 제2막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앤스로픽의 탄생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오픈AI 핵심 연구원들은 AI의 안전성과 AI 모델 개발의 상업적 속도를 둘러싼 견해 차이로 회사를 떠났다. GPT-2와 GPT-3 개발을 주도했던 이들은 AI가 얼마나 똑똑해지느냐보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집중하기 위해 앤스로픽의 깃발을 올렸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이들의 갈등 이면엔 AI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넓게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를 둘러싼 철학 차이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쌓인 권한과 공로를 둘러싼 상처들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초기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팩플은 지금 가장 뜨거운 기술과 비즈니스, IT 기업에 대해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국내외 혁신기업의 전략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는 ‘미래검증 보고서’이자, 혁신가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이트리포트’, 기술적 변화에 적용할 수 있게 돕는 ‘팩스킬 코치’입니다.

성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안전과 해석 가능성을 강조하는 행보는 느리고 답답해 보였다.

그러나 생성 AI가 기업 현장에 본격 도입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기업 입장에서 AI는 장난감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 놓여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즉 사고 발생 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신뢰성이 가장 큰 경쟁력이 된 것이다.

앤스로픽은 AI의 판단 근거를 추적하는 프레임워크를 공개하며 ‘설명 가능한 AI’의 표준을 제시했고, 이는 보수적인 대기업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AI 데이터-신뢰성 평가 스타트업 셀렉트스타의 강바롬 AI 실장은 “시장은 이제 더 강한 AI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AI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클로드를 두고 현업에서 나오는 반응은 과거 GPT 등 새로운 AI 모델이 나왔을 때와는 다르다. 답을 잘한다는 칭찬보다는 ‘일이 끝난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앤스로픽이 오픈AI, 구글에 이어 AI 3강 반열에 오른 이유도 이 지점에 있다. 챗GPT나 제미니가 기본적으로 목차와 문장 초안을 제시하는 초안형 AI라면, 클로드는 풀더 안 자료를 직접 읽고 판단하고 엮어서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위임형 AI에 가깝다. 앤스로픽은 지난 2월 “연간 10만 달러 이상 쓰는 고객 수가 최근 1년간 7배 늘었다”며 “포춘 10대 기업 중 8곳이 현재 클로드의 고객”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업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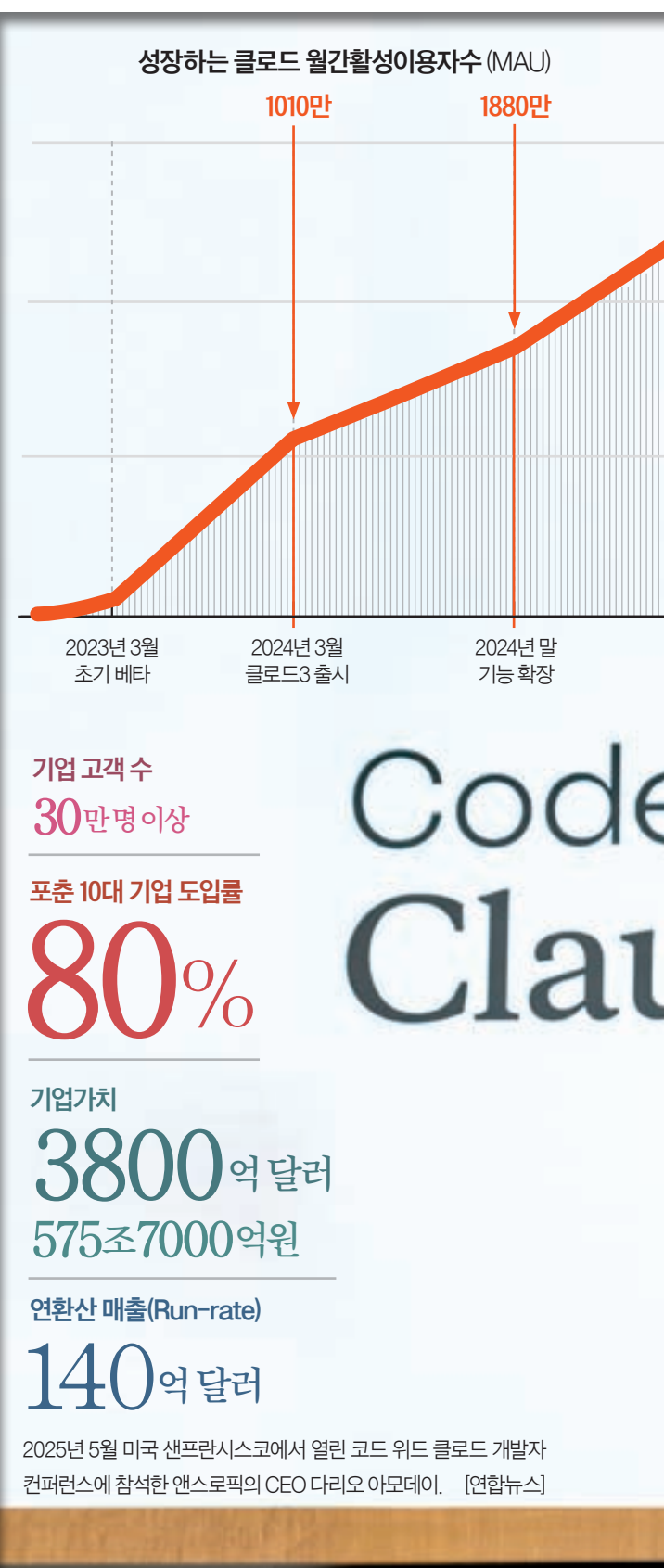
이런 실질적인 업무 대행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무기가 바로 MCP(Model Context Protocol)다. MCP는 AI가 외부 도구와 데이터를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붙이는 대신, 하나의 공통 규칙 위에서 읽고 쓰고 호출할 수 있게 만든 틀

상업화된 오픈AI 떠난 핵심 인재들 ‘믿을 수 있는 AI 모델’ 만들기 집중 챗GPT가 질문에 답하는데 머물 때 클로드는 여러 툴 오가며 업무 대행

이다. 예전에도 AI에 외부 도구 연결은 가능했지만, 연결 방식이 제각각이다 보니 오류 추적이 어렵고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와 검증이 쉽지 않았다. MCP는 이를 표준화했다. 그래서 AI가 어떤 파일을 읽었고, 어떤 도구를 호출했고, 어디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전체 흐름을 따라가기가 쉬워진다.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라이너의 김진우 대표는 “AI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날씨가 캘린더 같은 외부 도구를 다루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어렵다”며 “앤스로픽이 MCP라는 표준 규칙을 제시하면서 개발자들이 그 틀에 맞춰 만든 도구를 어떤 AI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클로드의 강점이 단순한 성능 경쟁력이 아니라, AI가 실제 일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구조를 먼저 제시했다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이 기술적 토대 위에 올라간 사용자 인터페이스(환경)가 코워크(Cowork)다. 이름만 들으면 협업 기능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여러 툴을 오가며 하던 일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AI에 넘기는 인터페이스에 가깝다. 그동안 파일 연결이나 외부 도구 호출, 작업 자동화 기능은 사실상 개발자 중심으로 활용돼 왔지만, 코워크는 이런 흐름을 비개발자도 상대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끌어왔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사용자가 “이 폴더 안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 “누구라도 약을 독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

강북 모텔 연쇄살인에 독극물 음료 AI 발전 속 누구나 약 지식 습득 가능

“기술과 수법이 급격히 발전한 현실에선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최근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독극물을 음료 등에 몰래 섞어 다수의 사상자를 낳는 사건이 잇따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관계기관도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희선(사진)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최근 들어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특정 약물이나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훨씬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특히 낯선 사람이 건네는 음식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 교수는 1978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임용된 뒤 마약분석과장·법과학부장 등을 거친 약물 관련 과학 수사 전



기도 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충격이 크다.

“과거에도 마약이나 전문 의약품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 범죄는 종종 있었다. 2018년엔 간호조무사 여성이 프로포폴과 리도카인·디클로페나 등을 투약해 남성을 살해한 ‘부천 링거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2017년엔 성형외과 의사 남편이 수면제와 마취제 등을 섞어 투약해 아내를 살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는 약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이란 점이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담당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natura d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포춘 10대 기업 중 8곳이 클라우드 쓴다



구글·MS도 AI 업무 도구화에 집중  
구독형 소프트웨어 종말론도 나와  
관건은 AI 도입 뒤 실제 수익성 여부  
기밀정보 유출 등 보안·통제도 변수

“시장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AI는 먼저 폴더 속 문서를 읽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린다. 중복 부분을 덜어내 핵심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목차를 만들고 각 섹션을 채우고, 필요하면 외부 자료까지 찾아 보강한 뒤 최종 문서 형태 결과물을 내놓는다. 사람이 브라우저와 문서 도구, 내부 자료 폴더를 몇 번씩 오가며 했어야 할 일을 한 흐름 안에서 압축하는 셈이다.

AI가 답변을 넘어 실제 작업을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구조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구독형 소프트웨어(SaaS)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SaaS Apocalypse) 전망도 나온다. 기존 SaaS의 경쟁력은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협업, 디자인처럼 특정 기능을 얼마나 잘 제공하느냐에서 나왔다. 하지만 실행형 AI가 등장하면 “이 자료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한 문장 안에 문서 작성, 계산, 검색, 정리 같은 기능이 모두 묶인다. 그동안에는 사람이 필요한 개별 툴마다 구독 비용을 지급하며 일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

다만 업계에서는 ‘SaaS의 종말’이라는 표현에는 신중하다. 소프트웨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다루던 전원에서 물러나 AI가 필요할 때 호출하는 인프라로 대체될 가능성

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김진우 라이너 대표는 “앞으로는 인간이 직접 사용하는 기능별 소프트웨어보다 에이전트를 위한 제품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프트웨어 시장의 무게중심이 AI 에이전트 인프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AI 개발 플랫폼 콧스웨이의 김주원 대표도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치의 중심으로 두는 SaaS는 위험할 수 있다”며 “클라우드 코드 등을 통해 각자에게 권한 UI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역의 SaaS는 여전히 가치를 지

닐 텐데, 이를 개별 기업이 직접 AI로 돌리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로 사용하는 것이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엔스로픽이 ‘일하는 AI’의 새로운 판을 열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한층 팽팽해졌다. 오픈AI는 일하는 흐름을 설계하는 에이전트 SDK, 코드를 실행하는 코드 인터프리터, 업무 맞춤형 AI인 GPTs, 외부 서비스와 연결하는 툴 사용 기능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AI를 대화형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 도구로 진화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 구글은 제미니를 검색, 워크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녹여 넣고, MS는 코파일럿을 통해 오피스와 윈도우, 기업 환경 전체에 AI를 붙이고 있다. 특히 MS는 권한 관리, 보안, 배포 구조까지 함께 묶어 기업 안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확장하고 있다. 엔스로픽은 구조를 만들고, 오픈AI는 그 구조를 빠르게 흡수하고, 구글과

기업용 AI 점유율  
2025년 말 기준  
자료: 엔로벤처스

엔스로픽  
40%

오픈AI  
27%

구글  
21%

메타  
8%

기타  
4%

MS는 그것을 자신의 영역 안에서 확산시킨다. 같은 AI 기능을 내놓고 경쟁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전혀 다른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승부를 가르는 건 ROI, 투자 대비 성과(수익)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AI가 기업의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그 결과를 숫자로 증명하는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다. 김주원 콧스웨이블 대표는 “이제 기업들의 관심사는 AI를 한번 써보는 것도, 벤치마크 성능도 아니다”며 “실제 AI를 도입했을 때 어떤 ROI를 만들 수 있는지, 업무 개선 효과 수치를 증명할 수 있는 지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엔스로픽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구글이나 오픈AI 등 다른 플레이어가 먼저 ROI를 찍어내면 판은 언제나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안과 통제 가능성도 핵심 변수다. 최근 불거진 ‘클라우드 코드’ 소스 유출 사태는 엔스로픽의 약한 고리를 드러낸 사례다. 핵심 개발 도구 코드가 외부에 노출된 것 자체가 기업 고객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보안과 통제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있는 AI를 앞세워온 회사인 만큼, 이번 사태가 주는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김진우 대표는 “기업이 AI 도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보안”이라며 “AI 에이전트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로컬 파일, 이메일, 메신저 등 내부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밀 정보가 외부 모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강바름 실장 역시 “3강으로 올라서기까지의 흐름이 과대 평가로 끝나지 않으려면 AI 에이전트의 판단을 구조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검증 인프라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진원·어환희 기자

“서 충격적이다.”

-법정에 사용된 약은 의사 처방을 받을 경우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품목인데.

“약과 독은 사실 다를 게 없다. 종류를 불문하고 용량과 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다. 여러 약물을 혼합하면 효과도 증폭된다. 강박 모델 연쇄살인 사건엔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 부정맥 치료제와 항히스타민제 등이 사용됐는데 이들 약품을 술에 한꺼번에 섞어 마시면

호흡 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등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할 수 있는 품목이지만 개인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문제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누구나 어렵잖게 전문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상용 AI 서비스에서는 인간을 사망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선 답하지 않게 돼 있다. 다만 간접적으

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까지 일괄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약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AI 시대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 분야에서도 AI 논란이 거세다. “신종 마약을 만들 때 AI를 활용하면 개발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마약 성분의 화학 구조를 AI에 학습시킨 뒤 신종 마약 후보 물질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종 마약은

기존의 마약 검사로는 검출이 어렵다 보니 ‘스텔스 마약’으로도 불린다.”

-맛은 쪽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나. “동일한 방법으로 AI를 활용해 신종 마약 후보 물질을 예측한다. 2020~2024년 5년간 국과수가 발견한 신종 마약만 41종에 달한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도 전 세계적으로 매주 2~3종의 신종 마약이 생겨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대응은 한발 늦을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협력과 공

조가 필수인 이유다.”

-국제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아시아와 미국·유럽 등 지역별로 주로 유통되는 신종 마약이 각각 다르다 보니 어디서든 신종 마약을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 이동을 제한하는 게 급선무다. 타이밍을 놓치면 순식간에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이다. 우리도 국제 공조와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이다.”

황건강 기자

##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채터 7·채터 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채터 5·채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 “한국은 제2의 일본 아니다” 미국에 경제대변인 역할

## 사공일 회고록

### 경제국정, 이랬다

경제수석 비서관 재임 4년여간 나는 국내에서는 가능한 한 대통령의 참모로서 ‘얼굴도, 목소리도’ 없이 뒤에서 경제 국정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도 경제 외교와 경제 국정 전반에 관한 대외 홍보에는 오히려 적극적 역할을 해야 했다.

그 배경은 이렇다. 1980년대 중반 들어 대미통상 마찰이 격화되기 시작했다. 미국 경제는 80년대 초부터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로 어려웠다. 게다가 중간선거를 앞둔 85년에는 무역적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 따라서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분위기는 고조되었고, 당시 미국 의회에는 300여 개의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운 각종 법안이 상정되거나 거론되고 있었다.

한편 미국 조야에서는 미국 경제를 곧 추월할 추세로 따라오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어 있었다. 이미 79년에 하버드대의 에스라 보겔 교수의 『재팬 애즈 넘버원』이 출판되어 미국인의 주목을 끌었다. 미국 의회와 미국 여론 주도층은 ‘일본 매리기(Japan bashing)’에 나서게 됐다. 일본은 자국 시장은 개방하지 않은 채 무역 흑자만 내는 국제사회의 ‘무임 승차국(free-rider)’으로 몰아붙였다. 85년 9월에는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플라자 합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때 미국 의회나 여론 주도층 일각에서 미국의 7대 교역국으로 부상해 반도체와 자동차 대량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을 ‘제2의 일본’으로 보는 시각이 생기게 된 것이다.

당시 우리 경제의 미국 의존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우리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35~40%에 달했다. 제조업 총 고용의 거의 4분의 1이 대미 수출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었다. 그런데 83년 5월에 미국의 업계와 노조가 한국산 컬러TV(당시 금성사·삼성전자·대우전자) 탐핑 제소를 했고, 대미 통상 마찰은 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당시 정부 내에는 대미 통상 마찰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도 미비했다.

미국 경제-통상 정책 당국과의 회, 그리고 업계와 언론계는 주요 한-미간 현안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 국정 전반에 대해 청와대로 직접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잦았다. 대통령 경제수석이 이들을



사공일 경제수석(왼쪽)이 청와대 사무실에서 외국인 방문객과 면담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1986년 9월 전두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을 접견하는 모습. [사진 사공일, 중앙포토]

상대로 사실상의 정부 최고위 ‘경제 국정 대변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하는 업무가 나의 경제수석 업무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무엇보다 먼저 미국 정부와의 회고 그리고 여론 주도층에 한국 경제의 현실과 특히 정부의 강한 개방 의지를 제대로 알려야 했다. 86년 당시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1인당 GNP)이 2266달러로, 1만6180달러에 달하는 일본과의 격차가 8배에 달했다. 게다가 일본과는 정반대로 만성 적자국이였다. 대만보다도 1인당 소득이 1000달러 낮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외 개방과 금융 자율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려야 했다. 실제로 80년 68.6%던 우리나라의 수입 자율화율을 88년 95.4%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의 가시적 개방 압력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시장 개방 자체를 지연시켜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압에 의해 개방한다는 국내 정치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야 했다.

우선 당시 국내에 상주하거나 도쿄나 홍콩에 상주하며 한국 취재를 담당하는 외국 주요 언론 특파원의 면담 요청에 응하고 이들 매체에 기고나 인터뷰를 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정부 내 책임 있는 고위 정책 담당자와 실무 담당자들이 만나주지 않아 이들 해외 주요 언론 매체는 근거가 부족한 오보성 기사를 내게 되고 그

결과 한국 경제의 대외 이미지는 크게 실추될 수 있다.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장기간 지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 업무는 그때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국정의 일부가 돼야 한다.

또한 나는 거의 매일 한국을 찾은 외국 언론인, 금융인과의 주요 외국 은행 지점장과 외국기업 대표들과의 면담을 아무리 바쁜 일정 중에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

마침 86년 11월에는 미국의 예산과 무역·관세 등 경제 통상 관련 입법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의 렌 로스토크스키 위원장이 이끄는 12명의 하원의원과 다수의 전문위원이 서울을 방문했다.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그들을 상대로 나는 한국 경제 전반에 관한 강연 후 깊이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귀국 후에 한국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도 보내왔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자격으로 직접 해외에 나가 한국 국정을 알리는 일도 해야 했다. 85년 8월에 미국에서 열린 댁스펀 회의 참석에 이어 86년 12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미국 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외채와 무역에 관한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재무장관, 클레이튼 야이터 미국 무역대표, 앨런 그린스펀 대통령 경제

자문 위원장, 민주당의 빌 브래들리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잭 캠프 하원의원을 포함한 영향력 있는 미 상하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나는 이 회의에서 한국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세계 외채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연설했다.

회의 중에는 베이커 재무장관과 비공식 회의도 했다. 내가 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베이커 장관이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고 김경원 박사)에게 나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환율 문제 때문임을 짐작했으나, 나는 가까이 만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무 장관이 아닌 대통령 보좌관인 만큼, 상호 의견 교환 차원의 비공식 면담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식 회의로 기록되지 않기 위해 주미대사는 배석하지 않고, 기록을 위해 주미대사관의 재무관만 배석한다고 통보했다.

회의가 열리고 있던 월드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데이비드 멀퍼드 차관보, 찰스 달라라 수석부차관보와 함께 베이커 장관을 만났다. 회의에서는 멀퍼드 차관보가 준비해 온 매일매일의 달러-원 환율 추이 자료로 구체적인 원화 절상 수준까지 제시했다. 거기서 나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무조건 원화 가치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원화 약세만 고집하다 필요한

기업 구조조정을 실행할 수도 있음을 잘 아는 사람이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미국 측 주장을 귀국해서 재무장관에게 그대로 전달하겠다”며 회의를 끝냈다. 베이커 장관과의 나의 개인적인 연은 이때부터 시작했다.

또한 나는 회의 중에 이 회의를 주도한 빌 브래들리 상원의원과 조찬을 같이 하며, 제3세계 외채 모범국인 한국의 경험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브래들리 의원은 프린스턴 대학 출신으로 미국 NBA 뉴욕 닉스의 스타 농구 선수였다. 그리고 회의 후에는 한국의 정치·경제 현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헨리 키신저(미국 국무장관 역임) 박사의 초청으로 그의 사무실에서 차담 회도 가졌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뉴욕 소재 외교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강연 후장 시간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윌리엄 글라이스턴 전 주한 미국대사 사회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케네디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테드 소랜스 박사, 로버트 옥스남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그리고 존 브레스난 컬럼비아대 교수를 비롯해 한국 경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미국 동부 지역의 주요 기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의 피터 칸 발행인과 노먼 펠스타인 편집위원, 그리고 카렌 하우스 외신부장 등과 만났다. 이들은 나의 KDI 시절부터 각각 도쿄와 홍콩 지부장, 그리고 기자로서 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래서 더욱 허심탄회한 상호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다. 뉴욕을 떠나기 전에 뉴욕타임스의 경제부와 외신부 기자, 그리고 여론담당 기자와의 면담 시간도 가졌다.

귀국길에는 남캘리포니아 지역 기업인들을 위해 월드 어페어스 위원회에서도 강연을 했다. 1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그리고 귀국 전에는 LA 타임스의 국제부장, 국제부 원로 기자, 노설위원 등과의 면담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정말 바쁜 10일간의 일정이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귀국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b>1. 천틀리 하이 싱글</b> \$1,299,000 방4, 화3.5, 차고2, 큰면, 락키엄 미들, 포틀라트리 초 (최고 학군) <i>Coming Soon</i>	<b>4. 스틸링 터운</b>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 50/606, Dulles Airport, RT28	<b>7. 애쉬번 뉴타운 55+</b> SOLD \$790,000 방3, 화3.5, 차고2, Elevator
<b>2. 현돈</b> \$590,000 2022년 새 콘도 방2, 화2, 차고1, 새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 <i>Coming Soon</i>	<b>5. 게인스빌 골프 싱글</b>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b>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하이 마켓 싱글</b> \$1,699,000 SOLD / CASH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차고3, 선룸, 고급 조경,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포함, 최신 HVAC, 정수시스템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b>3. 센터빌 스톤게이트 콘도</b> \$390,000 방2, 화2, 풀린 파워 초, 센터빌 고, 교통 중심 <i>Coming Soon</i>	<b>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b> Sold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차고2 2. 메나사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차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차고2	<b>9. 알디 싱글</b> SOLD \$869,000 2004년, 방4, 화2.5, 차고2, 전채마루, 국산디전,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

**백성호 공인회계사**

# 백성호 CPA, MBA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너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일등부동산

# 뉴스타부동산

대표 브로커  
**라니 오**  
703-899-8999  
410-417-7080



http://부동산학교.com 5주 속성반

## 부동산 학교

2026년 4월 14일 (화) 개강

수업료: \$350 (교재비: \$100) 시작이 중요합니다. 뉴스타와 함께 성공하세요.

>>> 온라인 라이브 강의 <<<

- 한국식 쪽집게 수업
  - 온라인 수업 병행
  -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 기본 컴퓨터 교육
  - 자체 제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 따라만 오시면 100% 합격보장!!**

**모든  
공사비는  
후불**  
(집 파신 후)

## 리스팅 접수 **개런티**

**어떤 집이라도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뉴스타에서 집을 예쁘게 공사한 후 동네 최고 가격을 받아드립니다”

### “그냥 팔지 마세요”

뉴스타에서 이쁘게 수리하고 꾸며드립니다.

- 수리 전 가격: \$650,000
- 공사비(후불): \$45,000
- 수리 후 가격: \$750,000

수리 후 \$50,000 이상 이익

\* 집마다 공사비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리하고 파세요.  
결과가 다릅니다”**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985,000 → \$1,265,000  
28만불 더 받고 팔림



**SOLD**

Sold in 2 days  
새로 다 꾸민 집.  
\$370,000 → \$388,000  
\$18,000불 더 받고 팔림

### 버지니아

<p>1</p> <p><b>\$1,500,000</b> 페어팩스 싱글홈 방 6, 화장실 5, 차고 2, 2018년, 로빈슨 HS, 좋은 위치에 전체적으로 수리된 고급집</p>	<p>2</p> <p><b>\$885,000</b>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 차고 2, 좋은 가격에 아주 넓은 구조, 새 부엌</p>	<p>3</p> <p><b>\$1,300,000</b> 페어팩스 싱글홈 방 5, 화장실 4+1, 땅 1 에이커, 페어팩스 병원 근처</p>
<p>4</p> <p><b>\$1,400,000</b> 페어팩스 싱글홈 방 4, 화장실 3+1, 차고 2, 2000년, 전체적으로 아주 잘 꾸민 집</p>	<p>5</p> <p><b>\$1,500,000</b> 페어팩스 싱글홈 방 6, 화장실 3, 차고 2, 아주 넓고 고급스러운 집, 쉐플리 HS</p>	<p>6</p> <p><b>\$2,100,000</b> 비엔나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차고 2, 새집, 거의 다 지어진 집, 비엔나 한가운데 위치</p>
<p>7</p> <p><b>\$1,150,000</b> 비엔나 싱글홈 방 4, 화장실 4+1, 차고 2, 벽돌로 지어진 고급 집, 잘 수리된 이쁜 집</p>	<p>8</p> <p><b>\$1,100,000</b> 비엔나 싱글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1999년 집, 타운하우스 가격으로 싱글하우스 구입</p>	<p>9</p> <p><b>\$1,999,000</b> 비엔나 싱글홈 방 5, 화장실 5+1, 차고 2, 2016년, 모던하고 고급스럽게 지어진 집</p>
<p>10</p> <p><b>\$870,000</b> 페어팩스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2013년, 법원 근처, 아주 넓은 구조, 우드슨 HS</p>	<p>11</p> <p><b>\$985,000</b> 페어팩스 타운홈 방 3, 화장실 3+2, 차고 2, 새집, 페어팩스 한가운데 위치, 고급 타운홈</p>	<p>12</p> <p><b>\$873,000</b> 센터빌 타운홈 방 3, 화장실 3+2, 차고 2, 2022년, 거의 새집 같은 이쁜 집, Westfield 고등학교</p>

### 메릴랜드

<p>1</p> <p><b>\$349,900</b> Nottingham 타운홈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p>	<p>2</p> <p><b>\$625,000</b> Elkridge 타운홈 방 3, 화장실 2+2, 차고 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바닥, 1층에 안방</p>
<p>3</p> <p><b>\$750,000</b> 실버스트링 타운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넓고 잘 꾸민 집</p>	<p>4</p> <p><b>\$1,275,000</b> N. Potomac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아주 이쁘고 밝은 고급 집</p>
<p>5</p> <p><b>\$1,075,000</b> 포토맥 싱글홈 방 5,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민 집, 좋은 가격</p>	<p>6</p> <p><b>\$1,070,000</b> N. 포토맥 싱글홈 방 5, 화장실 3+1, 차고 2, 아주 고급스럽게 잘 꾸민 집, 넓은 뒷뜰, 우튼 고등학교</p>
<p>7</p> <p><b>\$820,000</b> 엘리컷시티 싱글홈 방 3, 화장실 3+1, 차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민 집, 넓은 뒷뜰</p>	<p>8</p> <p><b>\$3,590,000</b> 베데스다 싱글홈 방 6, 화장실 7+1, 차고 2, 새집, 최고급 동네에 아주 넓고 이쁜 새 집</p>

### DC

<p>1</p> <p><b>\$950,000</b>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방 4, 화장실 4+1, 차고 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이쁜 집</p>
<p>2</p> <p><b>\$1,425,000</b> NW 싱글홈 방 3, 화장실 2, 체비체이스와 경제지역, 편리한 교통 고급 동네</p>
<p>3</p> <p><b>\$2,500,000</b> NW 싱글홈 아주 크고 고급스럽게 잘 꾸민 집, 고급 동네</p>
<p>4</p> <p><b>\$649,000</b> SE 타운홈 방 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어진 이쁜 집</p>

뉴스타부동산

VA 703-496-4989  
MD 410-618-4989

8230 Leesburg Pike, Suite 650, Tysons Corner, VA 22182  
3444 Ellicott Center Dr. #105, Ellicott City, MD 21043 롯데타워 우체국 맞은편



**내집 가격이 궁금하다?**  
캘러 사진으로 만들어진  
집감정 리포트를 신청하세요.  
1-800-406-4989

우리말 바꾸기

‘백지장’과 ‘종잇장’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협력하면 훨씬 쉬워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속담이 있다. 바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이다.

그런데 비슷한 의미로 ‘종잇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쓰기도 한다. 같은 뜻인데, 왜 ‘백지장’과 ‘종잇장’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을까. ‘사이시옷 규칙’은 한글맞춤법 중에서도 상당히 까다로운 원칙 중 하나다. ‘백지장’과 ‘종잇장’처럼 비슷해 보이는 단어일지라도 사이시옷 규칙을 확실히 알아야 구분해 적을 수 있다.

사이시옷은 순우리말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 가운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예: 아랫방(아래방/아뽕)),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거나(예: 아랫내(아래내), 빗물(빈물)),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ㄹ’ 소리가 덧나는 것(예: 나뭇잎[나문닙]) 등에 반쳐 적는다.

순우리말 ‘종이’ 뒤에 한자어 ‘장(張)’을 붙이면 [종이장] 혹은 [종[장]으로 발음된다. 즉,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ㄴ)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붙여 ‘종잇장’이라고 써야 하는 것이다. ‘백지장’은 [백지장]으로 발음돼,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지만 한자어와 한자어가 만나 이뤄진 합성어에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으므로 ‘백지장’이 바른 표기가 되는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알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문화산책

K-컬처는 이미 글로벌 컬처다



장소현  
시인·극작가

와 사회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生物)이라는 사실에 공감하면,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다.

역사를 살펴보면, 문화 예술은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수많은 도전과 시도 중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 것들만 살아남아 대표작이자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된 것일수록 원형에 가깝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예술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 것 중에도 생년월일이 분명한 작품이 꽤 많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대표적 한국민요로 알고 있는 ‘아리랑’은 1926년 10월 1일에 개봉한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이었고, 한국 전통무용의 대표작의 하나로 꼽히는 부채춤은 춤꾼 김백봉이 1954년 처음 발표한 창작품이고, 한국의 대표적 전통 무대 음악인 사물(四物)놀이 1978년 2월 22일, 서울의 소극장 공간사랑에서 열린 ‘제1회 공간 전통음악의 밤’을

위해, 김덕수와 팽과리 연주자 김용배가 제안하고 민속학자 겸 민속극 전승자인 심우성과 공연기획자 강준혁이 이름 지어 부른 것이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작품이 태어날 것이다.

내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70년대 초 한국에서 극작가로 활동할 때 주로 한 일은 탈춤이나 판소리 같은 전통연희의 틀과 정서를 빌려와 오늘의 이야기를 하는 작업이었다. 이른바 전통의 현대화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김경대던 가장 큰 어려움은 전통의 예술적 원형과 정신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계승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어떻게 전통의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 조화롭게 현대화할 것인가라는 숙제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런 숙제에서 벗어나 변화의 물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로 마음먹으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물론, 그렇다고 전통적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영화인 나운규는 한류와 K-컬처를 일찌감치 내다본 선각자였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아리랑’의 가사는 나운규가 지은 것이다. 그는 10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세계 각국 사람이 다 느낄 수 있는 공통된 감성을 잘 붙잡아, 조선의 산하와 정조를 기조로 만들어낸다면 세계 시장 진출에 어렵지 않을 줄 알아야.”

열린광장

‘부활’은 오늘도 계속되는 현재형



김재동  
이사·가톨릭  
종신부제

예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다. 무덤은 죽은 자만의 공간이다. 무덤이 비어 있음은 더는 죽음에 매여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분은 살아나셨기에 무덤 안에 계실리가 없고, 하여 그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은 바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 덕분에 극적으로 목숨을 건진 창녀 마리아 막달레나였다. 그분 덕분에 살아난 막달레나에게 생명의 은인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가장 비통한 절망이었다. 그녀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여인이었다. 그랬기에 그날 새벽, 그녀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동트기 전 은인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러 무덤에 갔다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 즉시 사도들에게 달려가 예수 부활을 알렸다.

이것은 막달레나의 예수께 향한 사랑의 체험이 예수 부활을 맞게 된 극적인 순간이었다.

언젠가 책에서 읽은 한국계 청년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했다. 그가 약물에 취해 방황하던 20대 초반, 어느 추운 겨울 난생처음 양아버지인 퇴역 군인을 따라 강원도 산골 바위 사이에 있는 돌무

덤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생모의 죽음과 입양인이 된 사연을 들었다.

양아버지는 6·25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퇴각하던 부대와 떨어져 철쭉 같은 산속을 헤매다가 바위 근처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것 난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눈 속에서 들리는 아기 울음이었다. 얼어붙은 손으로 눈더미를 파헤치자 그의 눈앞에 놀라운 모습이 드러났다. 웅크린 채 숨진 알몸의 여인 품속에서 포대기와 엄마의 옷으로 감싸인 아기가 울고 있었다. 아기만은 살려내기 위해 자신이 입었던 마지막 옷까지 벗어 아기를 감싸고 동사한 여인 앞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바위 사이에 여인의 시신을 묻었다.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밤새 헤

매다가 천행으로 부대에 합류할 수 있었다. 부대장의 호의로 막사에서 아이를 돌보다가 전역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와 입양한 것이었다. 말없이 양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청년은 돌무덤 앞에서 통곡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하나 벗어 엄마의 무덤을 덮기 시작했다. 그가 알몸이 되었을 때, 그는 약물에 찌든 청년이 아니었다. 알몸으로 죽어간 엄마의 사랑이 그의 안에 사랑의 불씨가 되어 새사람으로 부활시킨 것이다.

인간을 구하기 위해 처참히 끌려가 매 맞고, 가시관으로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간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 앞에서 우리도 더는 죄 속에 살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분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거짓과 위선과 탐욕의 자아를 불태우기에 충분했기에, 이제 올바르게 진실한 진리의 삶을 추구하는 ‘새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내 삶의 ‘부활’ 아니겠는가!

“해피 이스터(Happy Easter)!”

# 김철민

## 합동법률사무소

###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 서울이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지나 김  
교육/대학입시 대표

## Q 캠퍼스 투어 날씨, 대학 지원 좌우한다

▶문= 캠퍼스 투어 당일 날씨가 학생의 해당 대학 지원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가?

▶답= 내셔널경제연구국(NBER)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앰허스트 대학 연구진은 흥미로운 결론을 내놓았다.

2016년 여름부터 2024년 가을까지 북동부의 한 선별적 대학에서 캠퍼스 투어에 참가한 학생 기록을 시간별 기상 데이터와 연계해 분석한 결과, 투어 당일 날씨가 나쁠수록 이후 지원율이 뚜렷하게 낮아졌다.

더운 날 투어를 한 학생은 지원율이

10% 감소했고, 비나 눈이 오는 날은 8%, 추운 날은 5.9%, 흐린 날조차 4.9%가 줄었다. 연구진은 날씨가 해당 대학 지원율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다른 대학의 최종 등록 여부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학생이 대학 진학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독 그날 방문한 그 대학에 대한 인상이 나빠지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한 줄기가 원서 제출 여부를 가르는 셈이다.

날씨의 영향은 집단에 따라 편차도 컸다. 따뜻한 지역 출신 학생이 추운 날 투어를 하면 지원율이 14.6% 떨어졌

고, 아시아계 학생의 경우 비 오는 날 방문 시 지원율 감소 폭이 18.5%에 달했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날씨 영향을 더 크게 받았으며, 백인 학생에 비해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났다.

우리는 스스로 이성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날의 기온이나 하늘 색깔 같은 무관한 감각 정보에 쉽게 흔들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휴리스틱'이라고 부른다. 현재 느끼는 감정 상태가 대상에 대한 평가에 무의식적으로 전이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어떻게 대응해

야 할까. 현실적인 방향은 불쾌한 날씨의 투어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접점을 강화하는 것이다. 온라인 가상 투어, 재방문 프로그램, 재학생과의 1대1 연결 등이 날씨로 인해 형성된 첫인상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나의 대학 선택이 그날 우산을 챙기지 못한 사소한 불편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보다 의식적인 결정이 가능해진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날씨 탓을 하지 않으려면, 날씨의 영향을 먼저 알아야 한다.



최경규  
이민/비자 변호사

## Q 영주권 진행 중 이직

▶문= 영주권 진행 중 언제 이직하면 문제가 되나?

▶답= 가장 주의해야 할 구간은 I-485 접수 전 또는 I-485 접수 후 180일 이전이다.

이 단계에서 회사를 옮기면 기존 고용주를 기반으로 승인된 Labor Certification과 I-140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새 고용주를 통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미 확보한 Priority Date(우

선일자)는 유지되므로 대기 순번 자체는 잃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직이 가능하더라도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문=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나?

▶답= 이 경우에는 AC21 규정을 통해 이직이 가능해진다. 기존 I-140과 Labor Certification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 회사로 이동할 수 있으며, 중요한

조건은 새 직위가 기존 직무와 "same or similar occupation(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직책명이 달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유사하면 인정될 수 있다. 지역 이동도 가능하지만, 급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직무 유사성이 의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문=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도 AC21 적용이 가능한가?

▶답= 가능하다. 다만, I-140이 최소 180일 이상 계류 중이고 승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야 한다.

만약 I-140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180일이 지났더라도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I-140 승인 이후 이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다.

또한 영주권 취득 직후 바로 퇴사할 경우, 처음부터 근무 의사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근무 후 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아 최  
가정법 변호사

## Q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다... 다운페이 분쟁의 본질

▶문= 부모가 해준 집 다운페이, 이혼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

▶답= LA·OC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다. "결혼할 때 우리 부모가 다운페이를 해줬는데, 이혼하면 그 돈은 제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수십만 달러의 차이가 생긴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자. 이혼할 때 집은 집값 전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현재 집값에서 남아 있는 대

출을 뺀 금액, 즉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에퀴티를 기준으로 나눈다. 집값이 100만 달러이고 대출이 70만 달러라면 나눌 수 있는 금액은 30만 달러다. 다운페이 문제는 바로 이 30만 달러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다운페이를 해준 경우, 가장 먼저 부딪히는 쟁점이 바로 이것이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법원은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차용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자를 내거나 일 부라도 갚은 기록이 있는지, 돈을 주고 받은 방식이 대출처럼 보이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기록이 없으면 법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보면 그 돈은 공동 재산에 섞인 것으로 처리된다. "우리 부모가 준 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돌려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운페이 출처가 분명해도 상황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 집을 공동 명의로 샀거나,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기지를 갚았거나, 별도 기록 없이 돈만 들어간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는 처음에 들어간 돈이 공동 재산과 섞였다고 판단될 수 있어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별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차용증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실제로 일부라도 상환한 기록이 있으며, "이건 대출이다"라는 의사가 처음부터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집을 나눌 때 해당 금액을 먼저 반영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전체 에퀴티에서 인정된 금액을 먼저 빼고 나머지를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도 자동이 아니라 증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 한식의 품격

4명의 셰프가 빚어낸 정통의 맛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정통 한식의 맛!!**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혜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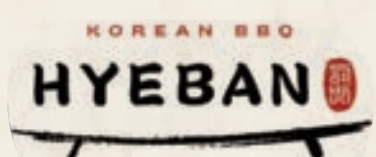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Weekly Special

따뜻한 즉석 칼국수와 깊은 맛의 닭볶음탕 런치 뷔페에서 만나요.~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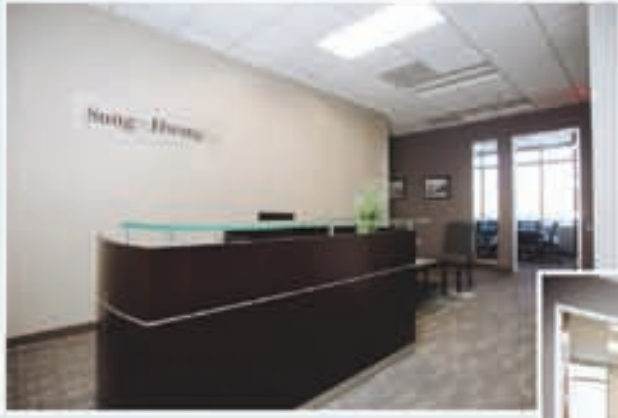
**구인**

주방 쿡 / 헬퍼 구함

# SHK FIRM

ATTORNEYS-AT-LAW

## 합동 법률 사무소 MD·DC·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MD, DC, V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Baker Botts, LLP  
NY, MD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 Clemson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Baltimore School of Law, JD

약력

Eccleston & Wolf  
MD

SHK FIRM  
ATTORNEYS-AT-LAW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에촌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 경제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Monday, April 6, 2026 C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매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담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하브 라인업’ 이래서 늘렸구나... 현대차 미국 판매 신기록

(기아 포함)

현대차-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경쟁사 대부분 판매량이 주춤했지만, 하이브리드차의 판매 호조로 현대차-기아는 실적을 끌어올렸다.

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에서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22만3705대, 기아는 20만7015대로 함께 43만720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1분기(41만9912대)보다 2.6% 증가한 수치다. 반면 경쟁사 대부분은 전년 대비 판매량이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제너럴모터스(GM)는 판매량이 9.6% 줄었고, 토요타(-0.1%) 혼다(-4.2%) 닛산(-8.3%) 등 일본차도 약세였다. 스텔란티스(4.1%)를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 시장에서 고전한 셈이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부진은 관세 영향이 적지 않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신차 구매 수요가 몰렸고, 이후 수요가 급감했다. 차량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 데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된 것도 판매에 타격을 입혔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기아가 선전한 건 전기차의 부진을 다양한 라인업의 하이브리드차로 상쇄한 덕분이다. 1분기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1만8086대 판매에 그쳐 -21.6% 역성장했지만, 하이브리드차는 53.2% 늘어난 9만7627대가 팔렸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쏘나타, K5 하이브리드를 미국 시장에 출시한 뒤 꾸준히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늘려왔다. 그동안은 투싼·스포티지·싼타페·니로 등 중형급 이하 차량 위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다가 지난해부터 팰리세이드·텔루라이드 등 대형급 차량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고 있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3월



현대차가 1일 미국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중형 픽업트럭 콘셉트카 '볼더'를 최초로 공개했다. 볼더는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북미 픽업 시장에 진출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사진 현대차그룹]

1분기 2.6% 증가한 43만대 판매 미·일 경쟁사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 하브 확대, 관세·고유가에 빛 발해 픽업도 공략...콘셉트카 '볼더' 공개

현대차-기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흔들리고 2위에 올랐다. 현대차그룹은 토요타의 전략을 벤치마크해 하이브리드 풀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이고, 고유가에 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차그룹의 라인업 확대 전략은 이미 본격화하고 있다. 1일 열린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현대차는 북미 공략을 위한 중형 픽업트럭 콘셉트카 '볼더'를 처음 공개했다. 픽업은 북미에서 특히 수요가 많지만, 지금까지 현대차는 큰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볼더는 현대차가 미국 고객이 원하는 바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중형 픽업트럭 시장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차종을 2030년까지 18

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아는 이번 오토쇼에서 북미 시장 처음으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디올 뉴 셀토스와 소형 전기 SUV 'EV3'를 선보였다. 중·대형 SUV에 이어 소형 SUV로 라인업을 확대하며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윤승규 기아 북미권역본부장은 "북미 하이브리드 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SUV 전 라인업에 걸쳐 하이브리드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오토쇼에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브랜드 등과의 경쟁에 대해서도 "더 나은 제품과 기술, 서비스로 경쟁하겠다. 가격 경쟁에 승부를 걸지 않겠다"고 했다. 남승서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서울아산병원 출신 전문의 진료**  
**나움 메디컬 센터**  
12600 Fair Lakes Circle, #100 Fairfax, VA 22033 / naumhealth.org  
**703-994-4511**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e 전직 검사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MD 301.770.4710**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VA 703.887.1037**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888.340.758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www.rowepllc.com** FAX 301-770-4711

# 물가 기름붓는 석유... 9.9% 꺾충

(3월 전년 동월 대비)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도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는 2.2% 상승에 그치며 일단 선방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2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블룸버그 전망치(2.4%)를 밑돌았다. 다만 전월(2.0%)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며 3개월 만에 반등했다.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지난달 초 배럴당 76.5달러에서 한 달 새 128.5달러로 급등한 영향이 컸다. 석유류 가격은 9.9% 뛰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10월(10.3%)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내면서 지난달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 가격 상승이 없었다면 전체 물가 상승률은 1%대에 머물렀을 것이라 의미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17.0%, 휘발유가 8.0% 올랐다.

다만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충격을 일부 상쇄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싱가포르 국제 휘발유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60%대 상승한 점을 고려하

면 석유 최고가격제가 일정 부분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먹거리 물가도 완충 역할을 했다. 주요 농산물 출하 확대 등 계절적 영향으로 채소 가격이 13.5% 급락하면서 농산물 가격은 5.6% 하락했다.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1.6% 올라 상승 폭이 둔화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2%로 안정을 유지했다.

문제는 이달부터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4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즉각 휴전해도 쿠웨이트-이라크 등의 원유 생산 완전 정상화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해협 개방 이후에도 고유가가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유사한 지정학적 사례를 보면 리스크가 진정된 이후에도 운임과 보험료가 정상화되기까지 평균 3주가량 소요된다"며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물가 영향은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

어서면서 물가 전반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드는 배경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는 최근 "일시적 공급 충격이라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켜봐야 한다는 게 교과서적 사례"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공급 충격이 장기화하거나 2차 전이 조짐이 나타날 경우 한은이 금리 인상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본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공급발(發) 물가 상승의 2차 전이를 막기 위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고물가와 함께 저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충격이라 기준금리를 당장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바로 금리를 올리면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지출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만약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영향을 충분히 살려본 뒤 나중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창용 총재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10일)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연 2.50%)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신 총재 후보자의 첫 금통위가 될 다음 달 28일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김원-김연주 기자



3월 소비자 물가 지수(118.80)가 1년 전보다 2.2% 올랐다. 농산물은 5.6% 하락했지만, 석유류가 9.9% 뛰었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마트에 채소가 진열돼 있다. 오른쪽은 한산하기만 한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 한인 금융권 SBA 대출 10억불 넘었다

2026년 상반기 누적 35% ↑  
뱅크오브호프 96% 늘어 1위

한인 금융권의 SBA 대출 승인 누적 금액이 총 1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인 은행들의 2026년 1~2분기 융자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총 7억 5000만 달러에서 올해 들어 10억 1413만 달러(35.4% 성장)를 보여 경쟁적인 영업 활동이 수차례 확인됐다.

중소기업청(SBA)이 1일 공개한 2026년 1~2분기(2025년 10월~2026년 3월) 국내 은행 SBA 융자 누적 실적 현황에 따르면 한인 은행 중 남가주에 본사를 둔 뱅크오브호프가 총 212건 승인을 통해 총 2억 3262만 달러의 실적(전국 8위)으로 1위에 올라섰다.

지난 분기 1위를 차지했던 US메트로뱅크는 총 116건을 통해 2억 1888

만 달러 융자 실적으로 2위를 기록해 170%가 넘는 성장을 확인했다. 인력 강화 등 기존의 SBA 융자 확대 방침을 일관되게 추진해 지난해에 이은 높은 실적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인 금융권에서 두 번째 규모를 가진 한미은행은 상반기 총 115건을 승인했지만, 전체 융자 액수는 8618만 달러로 건당 평균 74만 9000여 달러를 보여 소액 융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PCB뱅크는 총 42건의 승인을 통해 4679만 달러의 융자를 기록해 지난해 융자 총액 대비 -33.6%의 성장을 기록했다.

조지아에 본사를 둔 메트로시티뱅크는 총 49건의 승인을 통해 1억 84만 달러를 달성해 한인 은행권에서 세 번째로 높은 실적을 보였다. 메트로시티뱅크는 올해 초 퍼스트IC 은행과 합병 절차를 마무리해 향후 SBA 실적

한인 금융권 SBA 대출 2025 vs 2026 2분기 누적 실적 비교

자료: SBA

순위	은행명	2026 건수	2026 금액(\$)	평균 대출	2025 건수	2025 금액(\$)	건수 변화율	금액 변화율
8	뱅크오브호프	212	232,624,800	1,097,287	150	118,699,200	+41.3%	+96.0%
11	US메트로뱅크	116	218,889,600	1,886,979	39	80,702,000	+197.4%	+171.2%
31	메트로시티뱅크	49	108,491,600	2,214,114	22	51,149,000	+122.7%	+112.1%
32	CBB뱅크	63	101,522,000	1,611,460	68	75,580,000	-7.4%	+34.3%
36	오픈뱅크	57	87,144,000	1,528,842	69	104,832,500	-17.4%	-16.9%
38	한미은행	115	86,185,900	749,443	101	77,514,400	+13.9%	+11.2%
55	우리아메리카	47	48,686,400	1,035,881	54	35,518,000	-13.0%	+37.1%
61	PCB뱅크	42	46,793,300	1,114,126	64	70,511,400	-34.4%	-33.6%
71	센터스톤 SBA	32	37,645,000	1,176,406	52	69,910,500	-38.5%	-46.2%
161	프로미스원	29	15,495,000	534,310	34	27,346,500	-14.7%	-43.3%
186	뉴밀레니엄	11	12,467,000	1,133,364	18	18,796,000	-38.9%	-33.7%
232	신한 아메리카	6	8,119,000	1,353,167	12	12,000,000	-50.0%	-32.3%
261	뉴뱅크	9	6,352,500	705,833	11	7,562,000	-18.2%	-16.0%
355	하나은행 USA	1	3,720,000	3,720,000	1	120,000	0%	3.000%

에도 통합된 역량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올해 2분기 실적에서는 상위 은행으로의 융자액과 융자 건수가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SBA 융자에서 상위 투톱인 뱅크오

브호프와 US메트로뱅크가 4억 515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려 전체 융자액의 45% 가량을 차지했으며, 상위 5개 은행 비중은 70%에 육박해 규모 차이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당분간 SBA 융자 시장은

'빅2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 은행권 한 관계자는 "빅2는 물론 메트로시티, CBB 뱅크, 오픈 뱅크 등 중위권 다툼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인력 이동도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인성 기자

REALTYONE GROUP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koriny

승경호 부동산

사업체 & 상가 매물 안내

**CAR WASH**

찾아드리고 팔아드립니다

좋은 가격에 협상해드립니다

수입 꾸준한 사업체 매물 있습니다

1백만불 에서 3백만불

NEW HOME

*Fairlakes, VA*

*Reston, VA*

*Ellicott City, MD*

*Falls Church, VA*

*Ashburn, VA*

*Bethesda, MD*

새집 구입시 정확하게 진단하고 세밀하게 봐드립니다.

구입전 꼭 조언을 얻으셔야 합니다.

새로 집 지으실 분 건축업체 및 시공업체 소개해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컨설팅 상담하십시오

사무실, 병원, 창고, 공장 / 랜드 / 구입 찾아드리고 좋은 가격에 협상해드립니다.

서류 검토와 유리한 협상 전문

주택 매매 · 상업 투자 건물  
사업체 매매 · 사업체 임대 계약

건축면허 소지 VA Class A Contractor  
Tech Pulse Korea 대표  
Cloud Papyrus 대표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 집 장만' 발행인

**승경호**

www.dwellwashington.com

# 오픈AI에 사상 최대 투자... 경쟁 심화 한국차, 1분기 판매 신기록 달성

**약 1220억불 규모 자금 조달  
CFO "AI 인프라 구축에 사용"  
손실 딛고 수익성 개선 주목**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투자자들로부터 약 122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실리콘밸리 역사상 단일 투자 라운드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달 31일 오픈AI는 최근 마감한 투자 라운드에서 8520억 달러 기업 가치를 인정 받아 1220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에서 오픈AI는 아마존·엔비디아·소프트뱅크 등 빅테크 뿐만 아니라 월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도 약 30억 달러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며 주주 기반을 다각화했다.

오픈AI는 메타 출신 광고 베테랑을 영입하고, 기업 사용자 타겟으로 사업을 재경비하는 등 탄탄한 수익 모델 마련에 힘 쓰고 있다. 최근에는 핵심 AI 모델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비용 절감과 연산 효율화를 위해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앱인 '쇼라'를 비롯한 일부 기능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오픈AI는 챗GPT와 자사 코딩 AI서비스 코덱스(Codex), 웹 브라우저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AI 슈퍼앱'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픈AI는 "현재 월 매출이 20억 달러 수준이며, 구글·메타 등 경쟁사가 과거 같은 단계에 있었을 때와 견줘 매출 성장 속도가 4배 빠르다"고 강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오픈AI가 AI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낸다. [로이터]

했다. 투자금의 상당부분은 AI인프라 구축에 쓸 예정이다. 사라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소비자 및 기업 부문 전반에 걸친 오픈AI의 리더십은 가속화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의 엔진은 컴퓨팅 자원"이라며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소비자, 기업, 그리고 전 세계의 개발자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지능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규모로 (컴퓨팅 자원 등 AI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관심은 오픈AI가 확보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현재의 영업 손실을 딛고 AI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냐로 쏠리고 있다.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의 올해 영업 손실은 약 14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오픈AI나 엔스픽은 아마존·엔비디아 등 클라우드 및 AI칩 공급업체를 포함해 여러 벤처 펀드들과 얽히고 설킨 '순환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홍성기 기자**

**16만8012대... 전년 대비 3% ↑  
3월 판매량은 3% 줄어 주춤  
EV 부진에도 SUV 실적 방어**

한국차 브랜드 3월/1분기 판매 실적 동향

브랜드	모델	3월	증감률 (%)	1분기	증감률 (%)
현대	엘란트라	13,883	-4	33,063	-1
	아이오닉5	4,425	13	9,790	14
	아이오닉6	256	-82	829	-75
	아이오닉9	905	N/A	1,990	N/A
	코나	6,424	-9	17,391	2
	팔리세이드	9,075	-23	27,704	6
	싼타크루즈	1,815	-38	4,544	-32
	싼타페	12,988	-4	33,343	6
	쏘나타	7,498	31	14,547	-8
	투싼	23,721	0	55,426	1
베뉴	3,097	18	6,761	12	
합계	84,087	-3	205,388	1	
기아	EV9	1,247	7	2,740	-27
	EV6	883	-4	2,023	-46
	K4/포르테	13,714	0	37,220	1
	K5	6,477	1	18,806	19
	쏘울	543	-85	3,299	-71
	니로	2,502	3	7,455	46
	셀토스	5,212	8	14,699	29
	스포티지	16,819	0	44,704	8
	쏘렌토	8,858	-16	21,510	-14
	텔루라이드	13,306	16	35,928	20
카니발	6,947	7	18,631	28	
합계	76,508	-3	207,015	4	
제네시스	G70	964	-4	2,419	2
	G80	328	9	859	-3
	G80 EV	0	-100	0	-100
	G90	133	33	312	-9
	GV60 EV	72	-78	117	-84
	GV70	3,369	32	8,187	26
	GV70 EV	17	-95	47	-93
	GV80	2,255	5	5,483	8
	GV80 쿠페	279	-15	893	9
	합계	7,417	4	18,317	5
3사 판매량 합계	168,012	-3	430,720	3	

자료: 각 업체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금리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차 브랜드들이 지난 1분기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분기 전체로는 선방한 모습을 보였지만, 월별로 봤을 때 3월 들어 판매가 소폭 감소하며 흐름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등 한국차 3사는 지난 3월 한 달간 총 16만8012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했다. 다만 1분기 누적 판매는 43만720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 증가해 역대 최대 1분기 판매량을 기록했다. <표 참조>

현대차는 지난달 총 8만4087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3% 감소했으나, 1분기 누적 판매량은 20만5388대로 1% 증가했다. 투싼(5만5426대, +1%)과 싼타페(3만3343대, +6%), 팔리세이드(2만7704대, +6%) 등 SUV 라인업이 실적을 지탱했다. 전기차에서는 아이오닉5가 1분기 9790대로 14% 증가했지만, 아이오닉6는 75% 급감하며 대비를 이뤘다.

기아는 3월 기준 7만6508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3% 감소했으나, 1분기 누적은 20만7015대로 4% 증가했다. 스포티지(4만4704대, +8%), 텔루라이드(3만5928대, +20%) 등 SUV 라인업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전기차는 EV9이 27%, EV6가 46% 감소하며 부진했다.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지난달 7417대를 판매해 작년 3월 대비 4% 증

가했다. 1분기 판매량은 1만8317대로 5% 성장했다. GV70(8187대, +26%)과 GV80(5483대, +8%)이 브랜드 실적을 견인했다. 그러나 전기차 라인업에선 GV60 EV가 84% 감소, GV70 EV도 93% 급감했다. **우훈식 기자**

## 항공 2제

### 에어프레미아 매출 3년새 11배 성장

**3억9300만불... 역대 최대**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약 3억 9300만 달러를 거둬 2017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운항에 나선 2022년 매출(약 3520만 달러)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약 11배 성장했다.

이런 성장에는 장거리 중심의 여객 사업과 화물 및 부가 사업을 결합한 수익 구조가 주요

했다고 에어프레미아는 설명했다.

다만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영업손실 약 2130만 달러를 기록해 영업이익 약 2710만 달러를 냈던 전년에 비해 적자로 전환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연초 항공기 엔진 수급과 항공기 도입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고, 항공기 운용 및 정비 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다.

에어프레미아는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예비 엔진을 총 4대로 확대하고 해외 주요 기업들과 정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운항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알래스카, 한국 노선 비즈니스 도입

<비즈니스 클래스 스위트>

**시애틀 - 인천부터 적용  
프리미엄 서비스 확대**

알래스카항공이 한국 노선에 신규 프리미엄 좌석을 선보인다.

지난 1일 알래스카항공은 국제선 확대 전략에 맞춰 '비즈니스 클래스 스위트'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좌석은 오는 25일 보잉 787-9 드림라이너로 운항하는 시애틀-인천 노선부터 적용된다.

모든 좌석이 풀 플랫 침대형 구조에 미닫이 문을 갖췄고, 통로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8인치 고화질 화면과 기내 엔터테인먼트, 무선 충전 등 편의 기능도 제공한다.

기내식도 강화해 웹캠 플래터와 함께 노선별 특성을 반영한 주메뉴를 운영한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은 알래스카항공 프리미엄 라운지와 원월드 제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앤드류 해리슨 최고사업책임자는 "새 비즈니스 클래스 스위트로 장거리 여행의 기준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NMLS #: 2425871

융자 가능한 주

- \* 버지니아
- \* 메릴랜드
- \* 워싱턴 DC
- \* 뉴저지
- \* 조지아
- \* 웨스트 버지니아
- \* 노스 캐롤라이나
- \* 사우스 캐롤라이나
- \* 델라웨어
- \* 알라바마
- \* 플로리다
- \* 테네시
- \* 미시간
- \* 캘리포니아
- \* 펜실베이니아

## 꿈을 현실로 만드는 융자 회사!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서비스, 수십년의 경험

- 일반 융자
- 정부 융자
- 군인 융자
- 재융자
- 캐쉬 아웃 융자
- 최소 다운페이
- 최소 크레딧 점수
- 외국인 융자 프로그램
- Bank Statement 프로그램
- 투자자 대출 프로그램
- Direct Lender
- Competitive Rates
- Low Closing Costs
- Same Day Pre-approval
- 14 Days Closing Possible



**Bryan Park**  
703-727-9730  
bpark@umnloan.com / NMLS # 842353



**Daniel Myungchul Kim**  
703-283-4828  
mckim@umnloan.com / NMLS # 1001517



**Joon Joshua Han**  
703-268-3954  
jhan@umnloan.com / NMLS # 1622782



**Chris Park**  
703-899-8660  
cpark@umnloan.com / NMLS # 246985



**Youngjean Lee**  
703-596-5409  
yjlee@umnloan.com / NMLS # 1698083



**Shane Lee**  
703-899-8876  
slee@umnloan.com

**VA Fairfax Office**  
3923 Blenheim Blvd., Unit 62A&B  
Fairfax, VA 22030

**NJ Cherry Hill**  
1415 Route 70 E, Suite 502  
Cherry Hill, NJ 08034

**NJ Fort Lee Office**  
222 Bruce Reynolds Blvd., STE 590  
Fort Lee, NJ 07024

**GA Duluth Office**  
3483 Satellite Blvd. STE 208S  
Duluth, GA 20096

한국법 이야기 / 한국의 법외범죄 신설

### 직권남용죄와 중복 논란도...사법 책임 강화 위헌성 우려 있지만 향후 신중한 운용 과제

이른바 '법외범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의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다.

구체적으로 법외범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특정 당사자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오작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변조하거나, 위법 수집증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사실 형법에는 이미 직권남용죄가 규정되어 있고, 그동안 법외범죄의 처벌 대상과 유사한 사안들에서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 온 만큼, 법외범죄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폭넓게 규율하는 일반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법외범죄의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직권남용죄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남용죄가 본질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지와 같은 외형적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대법원 판례 역시 구체화한 권리의 현실적 행사가 실제로 방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비해 법외범죄는 고의적 법령 오작용, 증거 왜곡, 위법수집증거의 사용과 같은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법외범죄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여 위헌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보호법익과 금지행위를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한다고 본다.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

다만 직권남용죄의 '직권'이나 '의무'라는 표현이 곧바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외범죄 역시 문언을 일정 부분 구체화하고 재량적 판단의 예외까지 두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와 같은 표현이 고의적 왜곡과 단순한 오판

또는 법리 해석의 잘못을 실제로 선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더 나아가 법외범죄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법의 고의적 왜곡과 법 해석의 잘못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외범죄가 남용될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법관이나 검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법외범죄의 입법 취지는 기존 직권남용죄와 차별되는 측면이 있고 그 필요성 또한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증거 조작이나 명백한 법령 오작용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

히 지켜볼 문제다.

또한 법외범죄에 관한 수사와 기소는 다시 수사기관과 검사가 담당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고소의 접근성이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특정 집단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형벌조항의 도입이 해당 집단에 대한 형사고소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설령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다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은 물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검찰의 사회적 비용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 결국 법외범죄가 책임과 독립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갖춘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신중한 운용에 달려 있다.

부동산 이야기 / 내 집 지키는 방법

### HUD 상담원 및 은행과 페이먼트 협상 가능 전문가 통해 용자 조정 등 해결방법 찾아야

요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내는 홈오너들이 늘고 있다. 많은 모기지가 연체된 홈오너들은 안정적 페이먼트로 집을 유지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거의 모든 용자기관은 홈오너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반드시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승인한 하우징 카운슬러와 상담을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다. HUD 상담원은 해당 은행과 연락을 통해 홈오너의 재정을 분석해 현재 가능한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산출한다. 이후 현재 재정 상황에 맞는 페이먼트가 되도록 집을 지킬 수 있는 옵션을 찾아서 돕는다. 즉,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 이자도 낮추고 원금도 유예하거나 삭감을 통해 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상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체로 용자 조정은 12개월 내 1번이 허락되고 5년 내 2번까지 가능하다. 물론 예외는 있다. 은행마다 용자 조정을 해주는 손실 완화(Loss Mitigation) 부서를 포함한 계좌관리(Account Management)를 담당하는 고객관리 부서와 콜렉션 부서가 있다.

일반적으로 페이먼트가 연체된 경우 은행에 연락하면 콜렉션 부서에서 전화를 받는다. 이 부서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연체금을 언제 낼 거냐고 묻는다. 사실, 콜렉션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커미션에 근거해서 일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한테 연체된 모기지를 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면 손실 완화 부서 담당자들



이지락  
샬롬센터소장

은 월급제로 일하기 때문에 용자조정 도움을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정확한 부서 담당자와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용자 조정을 위한 서류를 점검하고 은행의 이자율을 낮춰 페이먼트

를 고객에게 줄여준다. 이로써 은행이 일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윤을 발생케 하는 적절한 선을 찾아가며 도움을 주는 위치에서 일하는 것이다.

먼저 집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금융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된다. 한 예로 1년 전에 용자조정으로 이자율 조정의 도움을 받았는데 다시 어려움에 부딪친 한인 부부가 찾아와 원금 삭감 재조정으로 집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경우가 있었다.

요즘 많은 한인 홈오너들이 용자 조정 관계로 많이 상담하게 되는데 집 페이먼트를 밀리지 않으려고 크레딧 카드에서 돈을 뺐아 집값을 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는 더 비싼 빚을 내서 모기지를 갚게 되는 것으로 잘못된 방법이다.

용자조정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전문성은 많은 상담경험과 정부나 용자기관의 다양한 트레이닝에 근거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다. 차압은 옵션이 아니다. 은행들은 다양한 해결방법을 동원해 용자조정을 해주려고 있다. 특히 이튼 지역에서는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홈오너들은 정부에서도 엄청난 펀딩으로 용자조정을 통한 지역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힘겹게 장만한 집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리소스가 없는지 전문가와 반드시 확인해 보기 바란다.

중앙일보 광고 및 구독 신청 문의 Tel. 703-281-9660

↪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Think eMarketing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 로컬 마케팅 진단 (신문독자 한정)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하십시오!"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isystems.com

# 중국·러시아·이란... 새로운 권위주의 세력이 겨냥하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이란을 선제공격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란 공격의 이면에는 미국에 위협적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밀착한 이란의 연대를 약화시키려는 포석이 깔려 있을 거라고 분석한다.

『유라시아 지정학』을 읽은 독자라면 아마도 이런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학대학원 교수이자 미국 국제 외교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인 할 브랜즈가 지은 이 책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유라시아 패권을 노리는 새로운 권위주의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첨예한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란이 작·간접적으로 개입한 중동의 위기 등 지정학적 대결 구도를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하려는 강대국들의 파워 게임'이라는 일련의 거대한 흐름에서 분석한다.

지구 육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유라시아는 세계 인구의 약 70%와 산업적 역량, 군사 잠재력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유라시아 핵심 지역과 해역은 가장 치열하면서 지정학적으로 세계를 규정짓는 경쟁의 무대이다.

지은이는 1·2차 대전을 '유라시아 지정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꿰뚫어 봤다. 1차 대전 당시 독일 제국과 2차 대전 때의 나치 독일, 일본 제국을 유라시아의 막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욕을 가진 '대륙 권위주의 세력'으로 분류했다.

지은이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민주주



아시아와 유럽의 전통적 경계 중 하나인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지난해 12월 선박이 운항하는 모습. [신화=연합뉴스]

세계를 규정짓는 유라시아 그 장악 위한 파워 게임으로 20세기부터 최근까지 분석 미국 중심 전략적 관점 뚜렷



유라시아 지정학 할 브랜즈 지음 김태수 옮김 21세기북스

의 세력'이 연합해 대륙의 권위주의 독재 세력과 맞선 지정학적 숙명의 결과로 해석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도래한 동서 냉전 역시 열전이 아니었을 뿐 유라시아의 세력 균형을 둘러싼 본질적인 대결이었다고 봤다. 냉전 시기 내내 소련은 이념을 내세워 끊임없이 유라시아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세력을 확장하려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는 이에 맞서 유라시아 주변부의 민주주의 국가들을 단단히 결속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소련이 스스로 붕괴하게 만들면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냉전을 평화

적으로 종식시켰다.

냉전이 끝나고 한동안 미국 단극 체제가 지속됐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중국·러시아·이란이 새로운 권위주의 연대를 형성하며 미국 주도의 질서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2022년 푸틴과 시진핑 간의 중·러 공동성명 발표와 곧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두 번째 유라시아 세기'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냉전 종식 이후 지속된 민주주의의 우위 시대는 이미 저물기 시작했고 유라시아 주요 지역은 격변에 휩싸였다. 중국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적

패권을 넘보고 있으며 러시아는 과거의 제국 부활을 꿈꾸며 공격적인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지은이는 또다시 유라시아 내부의 권위주의 국가들이 그 주변에 위치한 자유세계 공동체와 대립하는 시대가 됐다고 봤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동맹 수준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습에서 보듯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란 지원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미국 동맹체제는 눈에 띄게 균열되고 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적극 협력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비난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9가지 지정학적 원칙과 교훈을 제시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륙의 권위주의 세력이 유라시아를 장악하도록 방치하면 결국 자유세계 전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격변하는 국제 정세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대응 방향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의 굴기는 머잖아 한반도에 격랑이 밀어닥칠 것을 예고한 지 오래다.

이 책은 유라시아 대륙 세력과 주변 해양 세력의 경계에 놓인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와 현 국제 정세의 흐름을 냉철하게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참고서다. 미국 중심적 전략 사고 관점이 뚜렷해 비판적 독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예리한 통찰력만큼은 번득인다. 책 속에는 지금의 이란 전쟁을 읽어 낼 수 있는 지정학적 풀이 열쇠들도 많이 깔려 있다.

한경환 자유기고자

## 살인자가 된 천재 무지한 선의의 비극



슬픈 살인 조너선 로즌 지음 박다솜 옮김 문학동네

이런 글은 어떤 장르라고 해야 할까. 분명 회고록인데 두 소년의 우정과 경쟁을 그린 성장소설을 닮았고, 미국의 사회 변화상을 그린 논픽션, 정신질환 치료법 변천사를 추적한 의학 다큐멘터리

같기도 하다. 이야기는 1973년 열 살 소년 조너선이 뉴욕 북쪽의 위성도시 뉴로셀로 이사하고 동갑내기 마이클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두 유대인 소년은 함께 예일대에 입학할 때까지 8년 동안 같은 초중고를 다니며 단짝이 된다. 조너선에게 마이클은 "이미 인생을 한 차례 끝까지 살아보고 다시 어린 시절을 견디고 있는 사람"처럼 그야말로 '넘사벽'이었다. "1분에 1200단어를 읽을 수 있는" 학습 능력을 지녔고, 어른들과 논쟁을 벌여도 결코 꺾이지 않는 천재였다. 범상치 않은 이 소년이 발명하기 전부터 저자인 조너선은 소설에서 복선을 깔 듯, 이상한 조짐들을 짚어낸다. 이를테면 한순간 완전히 멎어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완벽하게 몰입하거

나, 아무리 소란한 곳에서도 잠들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 당시는 그저 괴짜로 치부될 뿐이었지만, 예일대를 3년 만에 졸업하고 경영컨설팅회사에 입사하면서 그것은 조현병으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편집·강박·우울증에 시달리던 마이클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치료를 받는다. 병을 이겨내는 듯하면서 자신이 조현병 환자임을 당당히 밝히고, 예일대 로스쿨 입학에 성공한다. 클린턴 대통령이 군대 내 동성애 문제에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정책을 펼치던 시대에 용감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언론에서 이런 좋은 먹잇감을 내버려 둘 리 없다. 뉴욕타임스가 1면에 대서특필하자, 할리우드에서 달려들어 150만 달러에 판권을 사들이고(브래드

피트가 마이클 역을 맡기로 했다), 60만 달러짜리 출판 계약도 맺는다. 부와 명예를 다 얻은 듯했지만, 불행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집필 스트레스로 상태가 악화된 마이클은 환각에 사로잡혀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만다. '정신장애를 극복한 영웅'으로 포장되면서 증상을 숨기고 최소한의 투약마저 회피했던 것이다. 조너선은 살인자가 된 천재 친구의 가슴 아픈 삶을 따뜻하면서도 냉철한 시선으로 기록한다. 여기까지만 해도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조너선은 한걸음 더 진실에 다가간다. 개인적 회고라는 씨줄 사이에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많은 정신의학의 발달사, 정신질환 환자를 대하는 사회적 태도의 변화, 거기에 개입하는 문화·철학·종교적 인식론까지 날줄을 던져놓

어 촘촘히 엮어낸다. 이런 태피스트리에서 저자는 친구를 무지와 편견의 희생자로만 그리지는 않는다. 마이클의 말들이 때로는 "위장막을 두른 자백처럼 들렸다"고 저자는 고백한다. 로스쿨 교수의 말을 인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싶을 때가 있느냐"는 질문을 저자는 물론 뉴욕타임스 기자도, 여자친구도 던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질문이 낙인이 될까 봐 망설이지만 무지한 선의가 낙인보다 무서운 비극을 낳을 수도 있다는 목격한 경고를 저자는 던진다.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가슴 시린 관찰과 미묘한 아이러니, 미래를 향한 메시지가 담긴 이 책은 2024년 풀리처상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

이훈범 작가

##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 완구매장에 2030 북적북적... '키덜트족 제품' 늘어난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 문구·완구시장. 골목상권에 위치한 각 완구매장은 입구부터 다양한 장난감을 진열해두고 손님을 맞으려 분주했다. 장난감을 집어 든 소비자 대다수는 20·30세대로, 어린이 고객은 드물었다.

매대에는 '말랑이(스펀지 같은 말랑하고 부드러운 촉감의 장난감)', '클리커(누르면 딸각이는 감각의 장난감)' 같은 장난감이 눈에 띄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성인 소비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난 품목이다.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완구매장에 들른 전이혁(28)씨는 "SNS 게시글을 보고 처음 와했는데, 비슷한 연령대의 고객들이 많아 부담이 없었다"며 "마음에 드는 희귀한 피규어를 저렴하게 구매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저출생 여파로 전통적인 유·아동 시장이 저물고 있지만, 그 자리를 성인 소비층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키덜트(Kid+Adult, 장난감 등 완구를 소비하는 성인층) 소비 증가에 실적 반등세 조짐이 보이자 대형 브랜드부터 골목상권 완구 업체까지 유·아동 중심에서 벗어나 20·30세대들을 겨냥한 제품군을 늘리는 분위기다.

소비 연령대 변화는 숫자로 확연히



지난달 30일 서울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에서 고객들이 장난감을 둘러보고 있다. 유·아동 시장에서 성인 소비층이 빠르게 증가하자 업체들도 20·30대를 겨냥한 제품을 늘리는 추세다. 노유림 기자

드러난다. NH농협은행이 NH농협은행·NH농협카드 고객의 상반기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30 세대의 완구 관련 지출은 직전년도 대비 224% 급증했다. 롯데마트가 운영하는 완구 브랜드 토이저러스도 키덜트족 소비 비중이 높은 전자게임류 카테고리의 매출이 2024년 전체 완구 매출에서 9%를 차지했지만 지난

## 업계, 완구류 좋아하는 성인층 겨냥 어릴적 향수 자극 피규어 등 인기 토이저러스·아트박스 매출 증가세

해에는 14%, 올해 1분기에는 19%까지 늘었다.

문구류 프랜차이즈인 아트박스는 전체 매출에서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65%, 2024년 67%, 지난해 70%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취향 기반 완구 소비가 늘어나면서 외부 지식재산(IP) 상품 매출 비중도 현재 약 60% 수준까지 늘었다.

덕분에 지난해 아트박스 매출은 269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매출(2479억원) 대비 8.8% 증가했다. 2021년 매

출(1314억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업계는 변화의 배경으로 '레트로(복고)' 수요 확대와 성인이 된 이들의 소비 여력 증가를 지목했다. 김경근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팀장은 "태권브이, 슈퍼보드 등 레트로 애니메이션 IP 협업 제품이 큰 인기"라며 "어린 시절 추억을 다시 즐기려는 키덜트족이 취미 생활이나 수집 목적으로 장난감을 많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구업계에선 이제 '아이들의 꿈'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취향'도 설계하기 시작했다. 아트박스 관계자는 "유·아동 인구가 줄어든 만큼 아트박스는 20·30세대를 향후 브랜드 성장의 핵심 타겟층으로 보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취향 기반 소비 기조를 반영해 IP 상품 등 다양한 문구·완구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경근 팀장은 "키덜트 트렌드 속 전자게임·피규어·조립 프라모델 등 성인 고객 비중이 높은 카테고리의 매출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롯데마트 청량리점과 잠실점에 키덜트족에게 인지도가 높은 '더티니핑 미니' 체험형 콘텐츠 공간을 마련했으며, 향후 20·30세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캐릭터 스토어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유림 기자

## SK AX "AI가 장애 방지, 휴먼 에러 최소화"

SK AX가 에이전트 인공지능(AI) 기반 인프라 운영 서비스 '엑스젠틱와이어(AxgenticWire) NPO'를 통해 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AI를 통해 시스템 상 문제를 찾아내 분석하고 자

동으로 조치까지 수행해 장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운영 체계다. 탐지 에이전트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분석 에이전트가 이를 해석해 원인을 추론하고 영향도 에이전트가 주변 시스템까지 범위를 넓혀 영향을 판단하는 식이다.

이후 조치 에이전트가 복구, 설정 변경, 자원 재할당 등을 즉시 실행한다. 기존 인력 중심의 운영 프로세스를 지능형 운영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차지원 SK AX CAIO(최고AI혁신책임자)는 "엑스젠틱와이어 NPO는 운영 전반에 AI가 먼저 움직여 대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휴먼 에러로 인한 장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롯데월드타워 '스프링 인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벚꽃 개화 시즌을 맞아 지난 27일부터 '2026 스프링 인 잠실'을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스프링 인 잠실은 롯데월드타워부터 석촌호수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와 석촌호수 동호 일대를 봄의 빛깔로 물들이는 축제다. [연합뉴스]

## 틱톡, 한국 콘텐츠 생태계에 760억 투자

글로벌 숏폼 플랫폼 틱톡(TikTok)은 2일 서울 강남에서 'K-임팩트 서밋 2026'을 열고, 한국 콘텐츠 생태계 확장을 위해 올해 5000만 달러(약 760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크리에이터에 대한 보상 강

하다. 틱톡은 한국어 콘텐츠에 한해 리워드를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는 '크리에이터 리워드 프로그램 2X'를 전년부터 시행했다. 또 특정 주제 고품질 콘텐츠에 최대 3배 보상을 지급하는 '스페셜 리워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현

재는 한국 사용자 선호도가 높은 TV·필름 분야 콘텐츠에 3배 보상이 적용되는데, 다음 달부터는 스포츠 카테고리가 추가된다. 중복 적용이 가능해 최대 6배 리워드 지급도 가능하다. 정재훈 틱톡 코리아 운영 총괄은 "한국은 글로벌 트렌드가 탄생하는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버크 타운홈**

**\$565,000**

방3/화3.5/파킹2  
부엌, Bath 등 전체 수리한 집  
Walk-out, 펜스, 덱 & 페티오

**비엔나 콘도**

**\$339,000**

방1/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마루, 넓은 덱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센터빌 타운홈**

**\$680,000**

방4/화2.55/차고2  
End Unit

**신규 리스팅**

클립턴 싱글홈  
\$900,000  
방4, 화3, 차고1,  
다수 업그레이드 완료

**SOLD**

페어팩스 타운홈  
\$675,000  
방3, 화2.5, 차고1

**PENDING**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차고1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추방재판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당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http://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뱃방) (한국어 상담)

버지니아 오피스 **703-246-9100 | 703-309-1455**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 로제 덕에 '아파트' 재건축 신축·구축 한자리서 볼까요



가수 윤수일이 데뷔 50주년을 맞아 월드 투어를 진행한다. 15년만이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아직도 사랑 받은 걸 다 못 돌려 드렸어요. 데뷔부터 공전의 빅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런 가수가 잘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 아, 그리고 일정 맞으면 (해외에 있는) 로제양과 협업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 로망입니다.”

가수 윤수일(71)이 데뷔 50주년 기념 월드 투어 계획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또렷한 쌍꺼풀만큼이나 깊어진 주름이, 말간 웃음과 함께 그의 하얀 얼굴을 물들였다.

윤수일이 오는 5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 '디 오리 지널'에 나선다. 내년 초까지 미국 7개 주, 일본 5개 도시, 호주 시드니 등을 순회하며 해외 팬들을 만난다. 지난 1일 중앙일보 상암사옥을 찾은 그는 “15년 만의 투어 연습과 홍보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면서도 “살아있다는 것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살아있다는 것으로”는 그가 지난해 발표한 자작곡 제목이다.

“여전히 슈트 핏이 멋있다. ‘평소 3패’를 실천하며 산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한다. 두 갑씩 피우던 담배를 끊은 지 벌써 20년도 더 됐다.”

50년 전 윤수일은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이었다. 1977년 데뷔곡

인 트로트 ‘사랑만은 앓겠어요’는 그해 최고의 앨범 판매 기록을 세웠고 각 방송사가 뽑은 1978년의 히트곡으로 선정됐다. 윤수일은 “어릴 때 겪은 가난과 설움을 한꺼번에 보상 받는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의 아버지는 주한 미군 조종사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돌아오기로 약속하고선 미국에 갔다 죽었다”고 했다. “‘양키’ ‘아이 노구(초록색 눈)’라고 손가락질 받던 내 외모가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해 어릴 때 어머니에게 물어봤다. 답을 들은 후엔 어차피 날 버리고 떠난 사람이니 더 자세히 묻지 않았다.”

“어린 시절 맘고생 깨나 했겠다. ‘매일 같이 우리 집 앞에 미군들이 와서 해외 입양을 독촉했다. 이사 간 동네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다. 기업이고 공장이고 내가 혼혈이라 안 뽑아 준다고 했다. 혼혈이라 병역 의무도 면제였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

그에게 윤씨 성을 물려준 건 윤수일이 초등학교 갈 무렵 어머니와 결혼한 새아버지다. 평범한 울산의 농부였던 그는 윤수일이 가수의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기타를 부수며 열렬히 반대했다. 그럴 때마다 윤수일은 막노동 공

**50주년 월드투어 앞둔 윤수일**  
혼혈 편견 딛고 데뷔곡부터 빅히트 ‘아파트’ 친구 이별애기서 영감 받아 “로제와 합동공연? 제 로망입니다”

사관으로 달려가 악기 살 돈을 벌었다. “울산에 있는 웬만한 대기업 공장들은 내가 다 지었다”며 웃었다. “언제 음악하기로 결심했나. ‘고 1 때 소풍 장기자랑에서 애니멀스의 ‘해 뜨는 집’을 불렀는데 반응이 난리가 났다. 그 길로 온갖 방향을 정리하고 음악하기로 맘먹었다. 친구들을 모아 ‘엔젤스’라는 밴드를 결성하고 밤마다 클럽 공연을 했다.”

“상경은. ‘어머니가 서울에 혼혈인들로 구성된 ‘골든 그레이프스’란 밴드가 있던 소식을 접하고 내 신상을 찍은 편지를 그쪽에 보냈다. 매니저가 울산으로 찾아와 서울 가져다 갔다. 그 길로 짐 싸다.”

골든 그레이프 멤버로 한 경연 대회에 나갔던 그는 안치행 프로듀서의 눈에 들어 ‘사랑만은 앓겠어요’로 데뷔했다. 이후 자작곡 ‘아파트(APT)’ ‘황홀한 고백’ ‘아름다워’ 등이 히트를 치며 단숨에 국민 가수 반열에 등극했다.

“‘아파트’는 어떻게 만들었나. ‘친구 얘기다. 그가 군대 갔다 돌아와 보니 여자친구 가족은 연락도 없이 외국으로 이민 간 상태였다. 아파트 초인종만 누르다 결국 돌아와야 했다. 그

순수함을 담았다.” 그는 ‘아파트’에 대해 “운동장(응원가), 노래방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노래”라며 “여기에 로제가 또 한 번 생명력을 연장해줬다”고 했다. 로제가 부른 ‘아파트(APT)’의 인기는 원조 격인 윤수일의 노래까지 관심을 끌었다. 두 곡은 ‘구축·신축’ 아파트로 불렸고 윤수일에게 ‘재건축 조합장’이란 별칭도 붙었다.

“로제의 ‘아파트’가 대히트 했다. ‘요만큼은 섭섭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웃음) ‘APT’ 세 글자는 영어 단어 사전에도 안 나온다. 아마 로제양이 어린 시절 내 노래를 듣고선 불인 제목 아닐까.”

이런 월드 투어 공연에서도 ‘아파트’를 들을 수 있다. 윤수일은 “히트곡뿐만 아니라 피아노 치며 팝송도 부르는 등 특별한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미래를 예상했었다. ‘신기하다. 어렸을 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콧대를 누르며 제발 한국사람 같아줘라 했는데, 이젠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코를 높이고 쌍꺼풀을 만들려 수술을 하고 있다. 이런 현재의 모습에 옛날의 내가 위로를 받는다.”

최민지 기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소	상태	가격	특징
7209 Valleycrest Blvd, Annandale, VA	COMING SOON	\$700K	매년매일 좋은 위치에 있는 반듯한 땅의 집, 생활 가능하나 As-Is Condition 으로 매매. 3/26일 마켓에 올라올 예정
1936 Lord Fairfax Rd, Vienna, VA	SALE	\$1.39M	타이슨스 DMV 근처에 위치한 잘 생긴 싱글하우스, 방 5, 화장 3.5, 현대 미국 외곽관 \$6,200/월 렌트 (7/31 종료)
3883 Billberry Dr, Fairfax, VA	SOLD	\$1.3M	마켓에 나온 주말 바로 계약 완료, 셀러 & 바이어 So Happy 3/17 세팅먼트 완료
5901 Sunstone Ln, Haymarket, VA	UNDER CONTRACT	\$900K	워 집 팔고, New 빌더 홈 구입. 3/27 세팅먼트 예정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UNDER CONTRACT	\$1.25M	로라가 Hampton of McLean 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에이전트라고 소문이 나서 본인 실도 팔아 달라고 연락 후, 4/3 세팅먼트 예정
6619 Weatherford Ct, McLean, VA	UNDER CONTRACT	\$1.7M	Langley 권에서 제일 좋은 단지 복수 오피 중에서 경쟁 돌고 득템, 바이어 So Happy 4/9 세팅먼트 예정
6501 Divine St, McLean, VA	UNDER CONTRACT	\$2.79M	셀러가 흡족할 만 조건으로 계약 완료, Seller So Happy 4/14 세팅먼트 예정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울 거울/내년 봄에 파건 나올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4월 ~ 10월	\$2,000 - \$5,500 가격대 렌트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20120	NEW	5/5 입주가능 Coming Soon
1423 McLean Mews Ct, McLean, VA	RENTED	주재원 (3년)
2302 Tanglevale Dr, Vienna, VA	NEW	4/1 입주가능
7004 Eastern Red Cedar Ln, McLean, VA	RENTED	\$5,200 평화로운 동네 싱글하우스, 방 4, 화장 2.5, 이쁜 정원, Flint Hill ES, Thoreau MS, Madison HS
1817 Fallbrook Ln, Vienna, VA	RENTED	마켓에 내 놓자마자 너무 좋은 세입자 계약 완료. 주인/세입자 모두 매우
4126 Timber Log Way, Fairfax, VA	RENTED	주재원 (3년)
8872 Ashgrove House Ln, Vienna, VA	RENTED	공실임이 28개월 장기렌트 완료. 주재원 (2 + 2년)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일 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구매 중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703-259-5617, 410-241-2520**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심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축구명가’ 3연속 월드컵 본선 탈락**  
 보스니아에 패배, 팬·정치인들 분노  
 구식 포메이션 고수한 게 화 불러  
 전술적 경직성 한국 대표팀과 비슷  
 외신 “한국, 월드컵 48개국 중 44위”

유럽의 축구 명가 이탈리아가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월드컵에서 4차례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자부심이 여전히 전한데 최근 3회 연속 본선행에 실패하자 이탈리아 전역이 충격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2위 이탈리아는 지난 1일 북중미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65위)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4로 졌다. 역대 월드컵 우승국 중 3회 연속 본선(2018·22·26) 무대를 밟지 못한 나라는 이탈리아가 유일하다.

전반 41분 알렉산드로 바스토니(인테르나)가 거친 태클로 퇴장 당해 한 명이 모자란 상태로 승부차기에 돌입했지만, 결국 승리하지 못했다. 골키퍼 잔루이지 돈나룸마(PSG)가 이탈리아 선수들의 킥 방향을 적어둔 상대 골키퍼의 ‘커피 페이퍼’를 발견해 고의로 훼손하는 등 비신사적인 행동까지 해봤지만 끝내 눈물을 뿌렸다.

이탈리아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제3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며 또 한 번의 본선 탈락을 맹비난했다. 성난 팬들은 자국 축구협회 건물로 몰려가 날개란을 던지며 분노했다. 정치인들



이탈리아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패배 북중미월드컵 출전이 좌절된 후 마르코 팔레스트라(왼쪽)가 동료 레오나르도 스피나촐라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AP=연합뉴스]

## 유럽 ‘스리백’과 이탈리아의 눈물

은 “가브리엘레 그라비나 축구협회의 사임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축구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선행에 실패하면 나라를 떠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젤나로 가투소(사진) 감독의 전술적 고집이 패착으로 지목된다. 스카이 이탈리아는 “세계 축구의 전술적 흐름인 포백을 외면하고 구식 3-5-2 포메이션을 고수한 게 화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영국 BBC와 미국 CNN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수년 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결과”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탈리아가 2006년 독일월드컵 정상에 오른 건 앞서 1990년대 청소년대표팀의 성공을 물려 받은 결과다. 하지만 1995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1부)가 팀당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폐지하면서 재앙이 시작됐다. 실력 있는 외국 선수들이 대거 몰려들자 자국 유망주들의 출전 기회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이는 국가대표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다.

리그 시스템도 건강하지 못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가 그가 막대한 중계권료를 앞세워 환골탈태하는

동안 이탈리아 클럽들은 낮은 운영 방식 아래 경기장 현대화도, 수의 구조 개선도 해내지 못했다. 최근 세리에A는 루카 모드리치(AC밀란) 등 은퇴를 앞둔 노장들의 무대로 전락했다. 이탈리아 축구계가 수차례 승부조작 스캔들에 휩싸이며 신인도가 추락한 것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안니코 신네르를 앞세운 테니스가 축구 인기를 위협하면서, 이탈리아에선 아이들에게 축구 대신 테니스를 가르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수비수 레오나르도 스피나촐라(나폴리)는 “아이들에게 이탈리아 없는 월드컵을 또 보

여주게 돼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때 경기력과 흥행에서 모두 초일류를 자부하던 이탈리아 축구의 몰락은 한국 축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리백을 고집하는 축구대표팀의 전술적 경직성,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팬들의 불신 등은 이탈리아의 상황과 묘하게 닮았다. 영국 가디언은 북중미월드컵 본선에 나설 48개국이 모두 가려진 직후 참가국 랭킹을 산정하며 한국을 44위로 평가했다. 아래 네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보베르데, 아이티, 퀴라소 뿐이다. 박린 기자



## 9명 중 8명 바꾼 KT... 성적도 달라졌다

올 시즌 초반 프로야구 KT 위즈 더그아웃은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로 가득하다. 앞서 스토브리그에서 영입한 새 얼굴과 젊은 피들이 맹활약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린 덕분이다. 지난달 28~29일 LG 트윈스와의 잠실 개막 2연전을 모두 승리하다니 31일과 1일에는 한화 이글스마저 연파하며 창단 후 처음으로 개막 4연승을 신고했다.

개막전부터 파격적인 선발 라인업을 선보이며 주목 받았다. 지난해 개막전과 비교하면 야수진 9명 중 3루수 허경민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뉴 페이스였다. 이강철 KT 감독이 “이러다 나도 바뀌는 것 아니냐”고 농담할 정도로 변화의 폭이 컸다.

최근 여러 시즌 동안 KT는 주전의 힘으로 버텼다. 2021년 통합우승을 이

끈 멤버들이 주축이었다. 풍부한 경험은 분명 강점이지만, 144경기 장기 레이스를 버티기엔 지구력이 부족했다. 지난해 6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배경이다.

KT는 적극적으로 선수단 개편 작업을 단행했다.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서 베테랑 타자 김현수를 영입했다. 3할 타율을 놓치면 뉴스가 될 정도로 정교한 방망이를 자랑하는 타격 장인을 데려온 만큼, 간판타자 안현민이 짝 어지던 해결사로서의 책임감도 나눠 맡겼다.

초반 흐름은 기대 이상이다. 천천히 타격감을 끌어올리던 김현수는 1일 대전 한화전에서 4타점을 쓸어 담았다. 특히 11-11로 맞선 9회초 2사 만루에서 찌꺼기 우전 2루타를 터뜨려 4연승의

개막전서 허경민 배고 야수다 교체 FA 김현수·최원준에 이강민 급성장 이강철 감독 마지막해, 벼랑끝 전략

일등공신이 됐다.

김현수와 함께 영입한 외야수 최원준의 배트도 매섭게 돌아간다. 개막 4경기 성적은 타율 0.389 5타점 5득점. 역시 1일 경기에서 홀로 5타점을 터뜨리는 맹타로 기존 주전 선수들을 압박했다. 빠른 발을 겸비한 최원준이 리드오프로 나서면서 기동력에서도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성우가 굳게 지키던 안방도 경쟁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FA로 데려온 한승택이 장성우와 마스크를 나눠 쓰는 중이다. 한승택이 가세하며 허리가 좋지 않은 장성우가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한승택이 타격에서도 강점을 보인다면 주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FA 선수들만 돋보이는 건 아니다. 이

제 막 싸운 티운 기대주들 중에도 눈여겨볼 만한 카드가 여럿 있다. 신인 내야수 이강민이 대표적이다. 개막전에 깜짝 선발 출격해 3안타를 때려내며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다. 유격수 고민이 큰 KT로선 더없이 반가운 수확이다. 지난해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98경기 타율 0.412의 뛰어난 성적을 낸 내야수 류현인도 주전 경쟁을 예고하는 젊은 피다.


사령탑 이강철 감독의 계약은 올해까지다. 지난 2019년 부임 후 두 차례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또 한번 신임을 받으려면 이 감독으로서 가을야구 진출이란 성과가 절실하다. 주전 위주의 야구와 결별한 KT의 도전은 올 시즌과 그 이후까지 염두에 둔 벼랑 끝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고훈준 기자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능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정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리지몬드 페닌슐라 상당원영**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 “모바일 앱으로 손님 폰에 세일 광고 및 마케팅 문구 전송, 무제한, 무료”



- 멀티매장 + 창고관리
- 간편한 재고관리
- 고객 포인트 적립 프로그램
- 모바일 앱을 통해 손님폰으로 세일 전송
- 기존 POS 시스템에서 재고 데이터 이전 가능
- 인터넷이 끊겨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모드
- 100,000개 이상의 뷰티 아이템 데이터 내장
- 매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가능

“모바일 앱 세일 광고 품목,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구매, 결제 가능”

“세일즈 에이전트 모집중!!  
문의: [hr@worldbankcard.net](mailto:hr@worldbankcard.net)”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WWW.WORLDBANKCARD.COM](http://WWW.WORLDBANKCARD.COM)  
[WWW.IMIDUS.APP](http://WWW.IMIDUS.APP)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교통사고 치료 전문

#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6년 임상경험의

##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http://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mailto: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niversal)

4월 구인광고

귀하의 성공을 돕는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 청빙공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모십니다.

- 유스그룹 사역자**  
신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생
- 아동부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아동사역 소명 있는 분
- 찬양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찬양 사역 소명 있는 분

합법 체류자로 사진 첨부 이력서 stmkumc@gmail.com으로 4월 15일까지 송부바랍니다.

### 운전기사님 모십니다

본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섬겨주실 운전기사님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 모집분야: 운전기사 1명
- 주요사역: 교회차량운행(15인승)
- 사역내용: 한달 4~5회(매 주일 예배 전후)
- 자격요건: 취업 결격사유 없는 운전면허소유자
- 사 려: 월 \$800.00
- 접수방법: 이메일 wbs7540@gmail.com (운전면허증사본, 5년간 운전기록)
- 접수마감: 4월 15일 5:00 pm

### 알링턴한인교회

2425 N. Glebe Rd., Arlington, VA 22207  
문의: 571.239.0888 / 571.351.0876

## SD Mechanical

### 테크니션 직원 모집

저희 회사는 대형 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회사로 냉장·냉동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office@gmail.com

\* 지원 방법은 이메일이나 메세지 부탁드립니다.

## WBS

###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대우 보장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hr@worldbankcard.net

## HYUNS HOMECARE

### Senior Services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근무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한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이름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 한국신사복전문점 젠틀맨

- 골프바지/티셔츠/남방/와이셔츠 Buy2 Get1 Free \$100 (단 1장은 \$50)
- 봄·여름 점퍼 \$100
- 봄·여름 콤비 (자켓) \$150
- 춘·하·추·동 신사복 완비

취급 품목 양복/콤비/점퍼/와이셔츠/티셔츠/신사바지/면바지 넥타이/벨트(가죽)/양말/팬티/등산바지/신사구두

한국신사복 571-481-1020  
알베르토 세리니 7720 Royston St. Annandale, VA 22003

## 메디케어

###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L&B Universal, Inc.

###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플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4월 6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 메릴랜드

### 구인/사무/직원모집

H-Mart Wheaton 매장 직원 모집  
모집부서: Customer Service  
근무지: 워튼점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301-942-5071

식품 도매 회사에서 직원 구함  
- 사무직 0명, 배송기사 0명  
주 5일 근무, Full time or Part time  
Paid time off, Medical insurance 제공  
eni@enidist.com  
Essex MD (301)477-4010

메릴랜드 몽고메리물 시계 및 주얼리 샵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 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취업에 결정 사유 없으신 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 (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간병인  
- 건강보험 및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443-288-6677

### 기타 구인

혜반(HYEBAN)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주방 쿡/헬퍼 구함  
Tel: 443-420-3096

SD Mechanical에서 테크니션 모집  
냉장, 냉동쪽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MD, DC  
문의: 703-447-4683  
E-mail: Sdmech.office@gmail.com

엘리컷시티 한식당에서 웨이터/웨이츄리스  
(풀/파트타임) 직원 구합니다.  
메세지 남기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443-243-8429

메릴랜드 하노버에 위치한 무궁화시니어  
의료 복지관에서 직원 구함  
-풀타임 운전하실분  
-주방 보조  
▶410-850-4059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분  
유경험자, 파트타임  
443-262-1813

홀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 중고 매매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티용 밥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튀김(덴뿌라) 기계 300불  
4. 그릴스몰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오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2018년 포드 트랜짓 250, 인슐레이션된  
쿨러, 차고지 MD  
201-681-4470

### 싱글/타운/방 렌트

메릴랜드 엘리컷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 지하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료 \$1,200  
703-231-5572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오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홈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 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 사업체 매매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번, 굿파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테쿰로장 나간 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 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 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굿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8.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번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델리 \$170,000 렌트 \$5,791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703-928-5990

델리샵(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 버지니아

### 구인/사무/직원모집

이민법 사무실, 1-140 파일,  
법률 보조원 구함. 타이슨 코너  
이력서: admin@eb3recruit.com

현스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간호사(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 근무  
문의: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WBS에서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력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hr@worldbankcard.net

Bristow, VA에 위치한 Commercial  
Remodeling 회사에서 Project Manager  
구함. Auto Cad 경험 필수  
703-507-3495

알링턴 한인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유스 사역자: 신학교 졸업자 또는 재학생  
-아동부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아동부 사역소  
명있으신 분  
-찬양 사역자: 유경험자 또는 찬양 사역소 명  
있으신 분  
-> 합법체류자, 사진 첨부 이력서 이메일  
stmkumc@gmail.com로 4/15일까지  
문의: 571-239-0888 / 571-351-0876

알링턴 한인교회에서 운전기사님 모집합니다.  
-운전기사 1명  
-주요사역: 교회 차량 운행 (15인승)  
한달 4-5회 (매 주일 예배 전후)  
-자격요건: 취업에 결정 사유 없는 운전면허  
소유자 (운전면허증 사본, 5년간 운전기록)  
-사례: 월 \$800  
-> wbs7540@gmail.com 4/15일까지  
문의: 571-239-0888 / 571-351-0876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 Office Maintenance  
□ Van Driver  
은퇴하신분 환영  
이력서 제출 bongL@ccdc.edu  
www.ccdc.edu

굿파울 USA 사무행정/사업관리 직원모집  
비영리 단체 경험자, 한/영 능통자 우대  
풀타임 (급여는 경력별 협의)  
근무지 McLEAN, VA, 이력서 / 자기소개서:  
▶info@goodpeopleusa.org

탐여행사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센터빌 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info@toptravelusa.com  
▶ 703-543-2322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서 Full Time 텔러를  
찾습니다.  
근무지: 센터빌 지점  
베네핏: 의료보험, 유급휴가, 401K  
자격요건: 합법 신분자  
이력서: hr@wooriamericabank.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다.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패어팩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  
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안과에서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함  
다. 이중언어 가능자  
이력서: dceyclinic@yahoo.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리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시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허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진욱

### 척추신경전문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 NO.1

##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 브래덕 패밀리 치과

###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 571-339-3628

# 571-339-3682

## 구인

### 메릴랜드 베데스타 한방병원에서

###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 구합니다!

### 문자로만 연락 바람

# 301-787-4842

##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 703.691.1993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 703-657-0944 /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종언 어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초과보형, 유급휴가 \$25.00/hr  
▶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타임 직원 구함  
이종언 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 Resume to: nat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험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 식당/식품

패어팩스 일식당에서 서버 구함.  
영어 필수, 수입보장, 파트타임 가능  
703-628-9168 (문자 요망)

RT-1 관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443-618-7141 (문자)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홀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계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  
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유/무 경험자)  
제빵사 풀타임(유경험자)  
703-625=8525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6 am - 2 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관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함.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헬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널 수퍼마켓  
- 정육부 매니저 1명,  
-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버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 / 파타임  
▶ 571-991-4172

##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 세탁/엘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타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타임 엘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타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 기타 구인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메케닉  
▶ 703-220-1400

애견 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  
▶ 571-660-8182

InCourage Martial Arts 에서 태권도 사범  
모집합니다.  
버크, 패어팩스, 애쉬번, 퍼셀빌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571-243-7027 (text 가능)

손 사이딩 올드 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홀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원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  
703-944-8433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 싱글/타운홈 렌트

1. 센터빌 롯데, 마트 근처 2 Car garage  
타운홈 렌트, 방3, 화4 \$3,500  
2. 센터빌 롯데, 마트 근처 1 Car garage  
타운홈 렌트, 방3, 화4 \$3,000  
240-271-1879

패어팩스 메리필드 지역 타운하우스 렌트  
방4, 화3,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주차2  
\$2,400  
571-229-7124 (문자 요망)

센터빌 타운홈 렌트  
방3, 화2.5, 밝고 환한 편리한 타운홈, 업데  
이트한 부엌 (그라닛 카운터탑, 새 냉장고),  
새 마루, 새 페인트, 잘 수리된 화장실,  
펜스 있는 뒷마당, 독점 파킹 2개, Visitor 파  
킹 다수, 교통 편리  
▶ 703-477-3114

##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렌트 \$2,000  
방2, 화2, 나무 마루, Granite Counter Top,  
타트인 구조, 업 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넓은 리빙룸, 발코니, 밝고 환한 콘도, 롯데 마  
트 근처, 교통 편리  
▶ 703-477-3114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1,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물감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2,250  
301-466-164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 방 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조용한 싱글 하우스  
욕실 딸린 큰방 하나 렌트  
240-271-1879

애난데일 K마켓뒤 싱글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1칸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2, 거실, 욕실, 가구 완비, 유포, 워크아웃  
703-835-0945

애난데일 한강 뒤 방 하나 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571-355-922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방1, 화1 렌트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유포, 엘리베이터  
703-989-0103

센터빌 H마트 근처 타운하우스 지하 전체 렌  
트, 앤드 유닛, 출입문 별도, 욕실 완비, 유포  
(3시 이후 전화요망, 또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703-474-5590

스프링필드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홈 작은 방 임대 \$700(유포)  
문의 : 301-928-4125

센터빌 타운홈 큰방, 개인욕실 \$1,200  
베이스먼트 전체 \$1400  
571-243-7027 (Text)

로튼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워크아웃, 유포, 방2, 거실, 부엌, 욕실, 세탁  
실, 초중고 걸어서 통학, I-95 1마일,  
즉시 입주 가능  
703-774-4939

설악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1, 출입문 별도  
간단 가구, 취사, 인터넷,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로튼 싱글하우스 반 지하 전체 렌트  
\$2,000(유포), 방3, 거실, 주방,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571-488-58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방 렌트,  
가족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로튼 (스프링필드 근처) 주택가 렌트  
넓은 1층 같은 워크아웃 전체  
방3,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 유틸리  
티 포함, 출입문 별도  
571-488-5860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 H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 요망)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욕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애난데일 시루암 방 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973-8123

애난데일 예촌타운 하우스 마스터 베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방

고 조용한 윌츠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  
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 렌  
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아웃 방 하  
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  
잠만 주무실분  
703-732-1246

첼트리 롯데마트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 하  
우스 방 세 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 사무실/점포 렌트

워싱턴 DC 중심가 가게 임대  
\$4,000/월  
그로서리, 컨비니언스 스토어, 커피숍  
문의 : 703-231-5572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일반 오피스  
또는 병원, 한의원도 가능, 즉시 입주 가능,  
390sf, \$24/sf/yr, 3-10년  
연락처 : windmill7000@gmail.com

센터빌 던컨 도넛 뒤 오피스 렌트  
1층, 1250sf, 주차다수, 즉시 입주 가능  
703-861-9923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 571-239-6054

##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1. Mclean 싱글하우스 \$2,790,000  
방7, 화6.5, 5년된 집, 주인 의 사랑으로 잘 관  
리된 집, 정전 대비 제너레이터 있음.  
2. Vienna 싱글 하우스 \$1,390,000  
방5, 화3.5, 타이슨스 코너 dmv 근처 위치  
좋고 조용한 동네  
3. Annandale 싱글 하우스 \$700,000  
위치 좋은 애난데일, As-is Condition  
▶ 703-625-9909

1. 폴스처치 콘도 \$210,000  
완벽하게 리모델링한 예쁜 콘도, 교통 편리,  
고급스러운 새 화장실, 새 나무 마루, 새 페인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빙트리 펫 리조트

이제 여행할 때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기시나요?  
여기 한인 2세가 운영하는 Pet Resort를 이용해 보세요!

**Room**

- 아늑한 럭셔리 룸
- 특급 Hotel급 특실
- 경력이 풍부한 훈련사
- 한적한 뒷동산 산책로

**Grooming**

- 한국인 선생님의 풍부한 경력, 예술적 그루밍
- 목욕 및 스킨 케어
- 최신식 목욕 시설
- 실내 및 야외 놀이 시설

\*애견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한인 담당: 571-660-8182)

• 1호점 (본사/레스톤): 571-325-2994  
1912 Association Dr. Reston, VA 20191

• 2호점 (폴스처치): 571-799-8100  
130 West Jefferson St. K9 Club, Falls Church, VA 22046

• 3호점 (알렉산드리아): 571-257-6420  
6118 Rose Hill Dr. Alexandria, VA 22310


www.givingtreepetresort.com

##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4월 6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트, 넓은 창문, 잔디밭이 보이는 큰 발코니  
2. 헌돈 콘도 \$310,000  
방2, 화2, 예쁘게 새로 단장한 콘도, 맨 윗층, 새로 업그레이드된 부엌, 새 페인트, 새 조명과 전등, 교통 편리  
▶703-813-8949

클락스빌타운홈 \$759,000  
방3, 화3.5, 차고  
▶301-318-4242/443-668-0453

1. 알링턴 싱글홈 \$1,600,000  
방4, 화3, 3,056sf, 2000년도에 지은집  
2. 캔들리 싱글홈 \$1,089,000  
방4, 화3.5, 4,237st, RT-50사우스라이딩 경계선  
3. 페어팩스 싱글홈 \$890,000  
방4, 화3, 3038sf, 우순하이스쿨 도보거리, 집전체 리모델링  
▶703-486-6082

1. 비엔나 콘도 \$325,000  
방1, 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마루, 넓은 데크,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2. 센터빌타운 \$600,000  
방3, 화2.5, 차고1  
3.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703-919-0472

1. 페어팩스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2, 집전체마루, 교통과 학교 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sf  
3. 캔들리타운홈 \$700,000  
방3, 화2.5, 차고2, 3레벨 모두 범프 아웃되어 동네에서 큰 타운홈이며, 지은지 11년된 비교적 새 타운홈  
4. 센터빌타운홈 \$700,000  
방3, 화2.5 차고2  
▶703-231-5572

1. 페어팩스 싱글홈 \$1,500,000  
방6, 화5, 차고2, 2018년, 로빈슨 하이스쿨 좋은 위치에 전반적으로 수리된 고급집  
2. 페어팩스 싱글홈 \$1,400,000  
방4, 화장실 3+1, 차고2, 2000년 전체적으로 아주 잘 꾸여진 집  
3. 비엔나 싱글홈 \$1,100,000  
방3, 화장실 3+1, 차고1, 1999년도 집 타운하우스 가격으로 싱글하우스 구입  
4. 센터빌타운홈 \$873,000  
방3, 화3+2, 차고2, 2022년 거의 새집 같은 이쁜 집, 웨스트필드 하이스쿨  
▶703-899-8999

1.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410-417-7080

메릴랜드 랜헙 싱글홈 \$700,000  
1991년, 방4, 화3.5, 차고2, 지하 울수리, 업 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703-863-0321 / 301-399-0140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749,900  
방3, 화3.5, 차고2, 교통 편리  
▶703-489-6926

우드브리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703-622-0312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차고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차고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컷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410-417-7080

## 사업체 매매

성업중인 픽업 스토어 매매 \$7만 (스태포드)  
우수선 전문, 저렴한렌트비(\$3,000/월)  
문의 : 703-231-5572

1. 치킨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 시티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 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페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굿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쿼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계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7.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8. DC NW 드라이클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 중고 매매 / 기타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 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시사용 밥기계 (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튀김 (덴뿌라) 기계 300불  
4. 스텐 그릴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2018년 포드 트랜짓 250, 인슐레이션된  
쿨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피아노 레슨 합니다.  
유치부,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특수 아동,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비속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울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분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애버사인 건축  
키친, 부엌,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및  
페디오, 펜스, 텍, 기타 집수리, VA/DC 라이선스 보유, 오랜 경력, 보험 가입  
▶703-994-2943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 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재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드립니다.  
▶703-598-3316

옵티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SD Mechanical에서 테크니션 모집  
-냉장, 냉동쪽 유경력자, 또는 관심 있으신분  
-서비스 지역 VA, MD, DC  
-지원방법:  
E-mail: Sdmec.h.office@gmail.com  
Phone: 703-447-4683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달러, 덕트, 드라이버벤트크리닝,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옷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 보석/웨딩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 드레스 & 텍스도 대여  
-웨딩플라워데코, 결혼식 장소 및 예산 선정  
▶703-642-2247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 팀삼부,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준 메케닉  
▶703-220-1400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홈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 새는 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셉텀프 교체  
571-594-4080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골객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보힘 처리 가능/용접(철, 스텐, 알루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닥트)  
▶301-222-3277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보험

###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방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수아 미용 타투

SERVICE LIST

- 두피 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 눈썹, 아이라인, 입술
- 속눈썹/헤어 생장술
- MTS (미백, 주름개선 세럼)
- 스킨케어



443-722-592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용자

###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인테리어 / 사진관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 웨딩스토리

###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 인터테크 냉난방

###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 Yami PHOTO STUDIO

Passport Photos Family Photos  
Maternity Photos Wedding Photos

Photos & Video For Any Event!

Call: 513-570-7017  
7023 Little River Turnpike #340, Annandale, VA 22003

## JGL Construction Inc.

### JGL 건설회사

“아청없이 저의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 EVERSHINE Construction

###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 집·가게 수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은 일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VA 703-340-5858  
MD 443-980-5858

##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세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씽폼프 교체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닥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 블라인드 / 틈트

##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통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hat's what figured: 예상했던 대로야

Jim is back at work after going out of town for two days and is talking to Roger...

(짐이 이틀 동안 외지에 갔다 다시 출근해 라저와 이야기한다...)

Roger: Welcome back 라저: 잘 왔어.  
Jim: Thanks. Did I miss anything?  
라저: 고마워. 나 없는 동안 무슨 일 없었어?  
Roger: No. 라저: 없었어.  
Jim: No problems? 짐: 아무 일 없었어?  
Roger: David was late every day as usual.  
라저: 데이빗은 여전히 매일 지각했어.  
Jim: That's what figured. He's always late.  
짐: 예상했던 대로네. 항상 늦잖아.

Roger: So how was your trip? How is your son daughter-in-law and the grandkids?  
라저: 그레 여행은 어땠어? 아들하고 며느리 손자들 어때?  
Jim: Everyone is fine. 짐: 모두 잘 있어.  
Roger: Did you roll the dice while you were in Las Vegas? 라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 했어?  
Jim: No. But we did some camping and fishing. I had the time of my life.

짐: 아니. 대신 캠핑하고 낚시 좀 했어. 정말 즐거웠어.  
기억할만한 표현  
\*as usual: 평소와 다름없이.  
Waitress: "What would you like, Roger?" (웨이트리스: 라저, 뭐 먹을래요?)  
Roger: "As usual, I'll have scrambled eggs and bacon. I always order that." (라저: 평소대로 스크램블 에

그하고 베이컨이지. 난 항상 그거 시키잖아.)  
\*roll the dice: 도박하다. 모든 것을 걸다.  
"I'm going to roll the dice and ask her to dance. I hope she says yes." (운에 맡기고 춤 추자고 해보야지. 추겠다고 하면 좋겠는데.)  
\*(one) had the time of his or her life: 더없이 즐거운 시간을 갖다.  
"We had the time of our lives on our honeymoon in Hawaii." (하와이에 신혼여행 가서 더없이 즐거웠어.)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가로열쇠

(1) 중국 대륙의 사막 지역에서 우리나라까지 불어오는 모래바람 (3) 잘 자라 우리 아가, 엄마가 불러 주조 (5) 노래 부르기가 직업이죠 (7) 하늘에서 미리 정해 준 것처럼 꼭 맞는 부부로서의 짝. □□배□ (8) 향을 피우고 두 번 절을 함 (9)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밤불만큼씩 둥글게 빚어, 끓는 물에 삶아 여러 가지 고물을 묻혀 만든 떡 (10) 녹두로 쏜 묵. 녹두꽃이 떨어지면 ~ 장수 울고 간다 (11)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울 때 발을 떼어놓는 걸음걸이 (13) 차와 과자. ~를 대접하다 (14)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개나 돼지의 병 (15)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17) 야구에서, 주자가 수비의 허술한 틈을 타서 다음 베이스까지 가는 일 (18) 땅이 거칠고 메말라 식물이 나거나 자라지 아니함 (20) 부부를 정답게 이르는 말. □□배□ (21) 여러 가지로 뒤얽힌 복잡한 사정이나 변화. □여□□ (23) 병의 아가리나 구멍 따위에 끼워서 막는 물건 (24) 총구의 반대쪽 끝의 넓적한 부분 (25) 야구에서, 투수가 변화를 주지 아니하고 직선같이 곧게 던지는 공

세로열쇠

(1)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 (2)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함. 난 이번 일에 ~을 낼 각오를 하고 뛰어 들었다. □□결□ (3) 자기가 직접 글씨를 씌. ~이력서 (4)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분모보다 큰 분수. 3/2, 7/5 따위 (5) 뒷걸음질하는 걸음. 호롱소리에 놀란 아이는 ~으로 방을 나가려고 했다 (6) 범인을 잡으려고 수사망을 펼 (9)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 (10) 신선한 과일과 채소 (11) 새끼를 낳은 암돼지. 식욕이 매우 왕성하고, 음식을 지나치게 탐내는 사람. 그 애는 밤만 보면 ~가 들린 듯이 먹어댄다 (12)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13) 불교에서 불에 태운다는 뜻으로 시체를 화장(火葬)하는 일을 이르는 말 (14)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길고 크게 만든 주머니 (16) 잇새에 낀 것을 쑤셔 파내는 데에 쓰죠 (18) 울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함. □문□□ (19) 불을 때거나 피울 적에 불이 쉽게 옮겨붙게 하기 위하여 먼저 태우는 물건. 불□□□ (20) 아주 크고 우묵한 술 (21)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22) 곡식을 빻는 기구

스도쿠

	5	8				9	3	4	
7						5		1	6
3	1	9				7			
2	7								8
4	8		1	7					
			3					7	
1							7		
									9
			6						
				4	8				5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5	9	1	8	4	7	2	3	6
3	6	2	1	5	9	7	4	8
4	8	7	3	2	6	5	9	1
1	2	4	7	8	3	9	6	5
2	9	5	6	1	7	4	8	3
8	3	9	4	6	5	1	7	2
2	5	8	7	9	4	6	1	3
9	1	6	5	3	8	7	2	4
7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양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양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양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양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www.92chickenusa.com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창업주 모집**

**치킨, 핫도그, 떡볶이, 소스  
장비박스, 도매, 미국 전지역**  
문의 : 770-769-7575

**92K-corn dog  
K-WINGS**  
Korean style chicken

**92Chicken  
KOREAN STYLE CHICKEN**

식당자리 구함! 부동산환영! 90개 매장오픈!  
다양한 노하우로 성공을 만들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기타 지역**  **매매**   
**구인**

**한식 쿡 구함**  
웨이트리스구함  
알래스카-숙식제공  
(907)456-2060  
(907)888-6666

**알래스카지역**  
\*중식쉐프...0명  
\*스시맨...0명  
취업결격사유없는분  
최고대우, 숙식제공  
(858)337-0982

**주방장**  
숙식제공,조리아주지역  
(646)229-2708  
accutech614@gmail.com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알래스카 일식당**  
하루매상 \$3,000  
매매가 \$20만  
(408)497-1540  
메세지주시면 연락드림

**알래스카 호텔매매**  
Bethel지역, 13룸  
큰 투자하지 않고  
돈 벌수있는  
절호의 기회~  
(907)545-0326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폴립·변비·요실금 훌훌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마리클 터치 (213)675-6877**

구인·주택 사업체 매매  
온라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www.HELLOKOTOWN.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GLOBAL MBA  
2026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17 - APRIL 21  
Application SUBMIT ONLINE

+82-2-2123-3254 gmba.admissions.ysb@yonsei.ac.kr mba.yonsei.ac.kr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휘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저긋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2026 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 센터빌
- 찬틀리
- 헌돈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 보험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박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바디프렌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봄맞이 특별 SALE**

부모님이 좋아하실 선물은 역시 안마의자 바디프렌드! 디자인 OK 성능도 OK 기쁨 더더욱 OK

단 하나의 하이엔드 헬스케어 로봇

**NEW 파라오 Q**

로보틱스 테크놀로지, Bang & Olufsen 음향기술 탑재, 고급 천연가죽시트, 10인치 터치 태블릿 리모컨, XD-PRO 마사지 모듈, 척추 라미나 마사지

HIGH-TECH ROBOTICS TECHNOLOGY

신제품 입고 기념 **20~25% OFF**

크기는 줄이고 기술은 완벽하게

컴팩트한 헬스케어 로봇, **팔콘SV**

작은 공간에도 문제없이 콤팩트하게!

\* 헬스케어 로봇의 더욱 다이내믹한 마사지감!  
 \* 천연가죽 사용으로 강해진 내구성!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월넛 우드 패턴' 디자인!

**풀무원 김치냉장고 런칭 기념 세일!**

내 공간에 딱 맞는 김치냉장고 바쁜 아침을 달콤하게 만드는 바쁜 솔루션

풀무원 김치냉장고 120L PULMUONE KIMCHI FRIDGE 120L

SPECIAL OFFER ~~\$1,399~~ **\$999**

간편하게 맛있게 풀무원 인버터 불림시스템, 6가지 맞춤 보관 모드

**STEAMBOY**

스팀보이 카본 온수매트

SPECIAL OFFER ~~싱글 \$340~~ **\$300**

오래된 안마의자를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특가 세일

무조건 최고의 가격 보상품으로 즉시원히 할인해 드립니다.

**Osaki PRO 4D MAESTRO LE** **Osaki PRO 4D EMPEROR**

건강마을 파격 할인 가격을 확인하세요.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월 업그레이드 일월매트의 자부심 안전한 잠자리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휴표 흥 매트**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흥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대(竹) 자리

3중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흥매트

원사이즈 ~~\$1,199~~  
 싱글사이즈 ~~\$899~~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버지니아 워싱턴 월던 지정 대리점

**월던 편백 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짜맞춤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5 3중 고온 안전처리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 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 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절찬리 판매중**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2 단단 편리한 작동 3 3간단 편리한 작동 4 우수한 안전성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로 건강을 채우고 피톤치드 목욕~

**독점 Aldie 고급 싱글홈**

5,800sq, 40만불 이상 업그레이드한 집, 2024년, 방5, 화장5, 최고급 빌더, Premium Lot, 더블 아일랜드, 최고급 기능 부엌, 특별하게 디자인된 안방 화장실과 Working Closet

**\$1,725,000**



**독점 Clifton 콘도**

호수를 품고있는 멋진 단지, 방2, 화장2, 완전히 업데이트한 집, 새 페인트,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고급 SS Appliances, 새 Washer & Dryer, 넓은 거실, 계단없는 1층, H마트 1분 거리

**\$385,000**



**독점 Falls Church 콘도**

완벽하게 리모델링한 예쁜 콘도, 교통 편리, 고급스러운 새 화장실, 새 나무마루, 새 페인트, 넓은 창문, 전대밭이 보이는 큰 발코니

**\$210,000**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한 타운홈, 1,2,3층 구조, 리노베이트한 부엌 (New Cabinet, Granite Countertop, SS Appliances), 새로 꾸민 화장실들, 방3, 화장2, 밝고 환한 집

**\$44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